



금수강산

1

2025년

루게 제 425호 월간



표지: 경축의 축포

새해 2025년을 맞이하는 평양의 하늘가에 축포가 터져오른다.

송년의 언덕에서 경이적인 사변들과 잊지 못할 사연들로 이어졌던 지난해를 류다른 감회속에 바래우는 조국인민들의 마음이런듯 경축의 축포가 수도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한다.

사진 리명국



2



24



40



34



52

2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린 선물

14 || 옥돌공예 《룡과 조롱박》

15 || 조국의 현실을 조명한 노래

수기

16 || 황금해력사창조의 나날을 돌이켜보며

승리와 영광의 80년

18 || 조선로동당의 깊고도 억센 뿌리

수필

19 || 열려진 고향집사립문앞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20 || 라자구등관에서

24 || 거창한 변혁의 해 2024년

30 || 새해를 축하합니다

32 || 새해 첫 진군길에 넘치는 목소리

34 || 중앙레루생산에서 혁신을

36 || 청년전위, 그 부름과 더불어

40 || 과학자의 량심과 자존심을 안고

42 || 흥성은 꽃상점

총련 조선대학교 졸업학년학생조국방문단
성원들의 문학작품중에서

43 || 보고싶은 나의 친구 애령에게

고향소식

44 || 다각적인 발전잠재력을 갖춘 도시

조국의 품에 안겨

48 || 저녁노을이 그토록 아름다운것은...

민족의 향기

50 || 민족당과 다식

조국의 력사유적을 찾아

52 || 약산동대의 천주사에서

력사인물

54 || 애국시인 리규보

력사이야기

55 || 아버지를 찾아온 유류

56 || 보통강에 결박된 미제의 무장간첩선

편집: 김광수, 최은혁, 서철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 확대회의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에 참석하시었다.

총비서동지께서 주석단에 등단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비범특출한 정치실력과 거창한 령도실천으로 가장 정의롭고 존엄높은 룡성번영의 새 전기를 펼쳐가시는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위대한 대표자이시며 주체혁명의 걸출한 수령이신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우렁찬 환호를 더쳐올리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이 회의에 참가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부서 일군들과 성, 중앙기관, 도급지도적기관 책임일군들, 시, 군당책임비서들과 인민위원장들, 주요공장, 기업소 당, 행정책임일군들, 인민군대 해당 지휘관들이 방청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를 사회하시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외교 등의 전 방면에서 새로운 변환적국면을 열어놓는 의의깊은 사변들을 이룩하였으며 이는 우리 혁명의 전진도상에서 필수적인 괄목할만한 성과로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한해 투쟁결과를 총화하는 마당에서 당중앙은 마땅히 성과보다 그것이 세부적이고 일부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결점들을 더 많이 찾아내고 해결책을 도출해내는 것이 옳바른 태도이고 혁명적인 자세이라고 강조

하시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국가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며 당중앙위원회 제8기기간의 마지막해인 2025년에 당대회결정을 드림없이 완수하기 위한 투쟁계획을 신속있게 세워야 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전원회의 개최를 선언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정치국 위원들로 집행부가 선거되었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었다.

1. 2024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총화와 2025년도 투쟁방향에 대하여
2. 당중앙검사위원회 2024년도 사업정형에 대하여
3. 우리 당의 새로운 지방발전정책과 금후과업에 대하여
4. 나라의 교육로대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실시할데 대하여
5. 2024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5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하여
6. 당내기구사업에 대하여
7. 조직문제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정들을 일치가결로 승인하였다.

전원회의는 첫째 의정 《2024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총화와 2025년도 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참가자들은 보고를 청취하였다.



보고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제10차 전원회의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제22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비롯한 중요당회의들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여 이룩한 성과들과 그 과정에 발로된 결합들이 상세히 지적되었다.

김정은동지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을 하시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분투와 변혁의 한해로 자리매김한 2024년의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적 평가를 내리시고 올해의 주요성과들을 개괄 하시었다.

우리는 올해에도 정치군사분야의 강화발전에 계속적인 힘을 넣어 공화국의 절대적위세를 더욱 상승시키고 자주권수호와 사회주의발전을 확고히 담보하였다.

전당적으로 우리 특유의 일심단결에 토대한 전체 인민의 애국적열의를 새시대 천리마정신의 창조에 승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공세가 강화되었으며 이 과정은 그 어떤 난국도 과감히 딛고 기적을 떠올리는 우리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더욱 증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해에 우리당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사에는 또 하나의 전례없는 기록이 새겨졌다.

올해 일부 지역들에서 큰물에 의한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우리 당은 적시적인 결심을 내려 방대한 복구사업을 전개하는 동시에 수재민들을 수도 평양에 올려다 안정되고 편리한 생활조건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수업을 보장하는 비상체제를 가동시키였다.

이 중대조치는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고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잃은것 이상으로 위해주고싶은 진정과 성의, 후대육성

을 제1의 국사로 내세우는 교육중시의 표시로서 당과 인민의 혈연적뉴대를 더한층 두터이 하고 당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공고히 하는 소중한 결과를 낳았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사수와 주권수호의

12개 중요고지들이 성공적으로 점령되었으며 금성뜨락또르공장 2단계 개건현대화공사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에네르기절약형산소열법용광로건설을 비롯한 정비보강대상공사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어 자립경제의 발전동력과 잠재력이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농업부문에서 과학농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또다시 풍년을 안아오고 관개건설 및 환원복구 2단계 공사가 4월까지 전부 결속되어 농업생산의 물질적 토대가 한층 강화되었다.

건설부문에서도 수도의 화성지구에 건축미학적으로 더욱 세련되고 발전된 1만세대의 살림집들을 또다시 일떠세우고 검덕지구의 올해 살림집건설과제를 결속하였으며 많은 시, 군들에서 현대적인 농촌마을들을 완공하여 온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과 희열을 안겨주었다.

평안북도와 자강도, 량강도

근본담보인 강력한 자위국방건설에서 사변적인 성과들을 쟁취한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결론에서는 극도로 악화되는 지역의 안전환경에 대처하여 단호한 강경대응태세를 견지하면서 압도적인 전력강화로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고수하였으며 우리의 새로운 전략적억제력의 실체를 과시하고 국방과학기술력의 무한대한 발전잠재력과 현대성, 무시할수 없는 국제적지위를 세계앞에 똑똑히 시위한것을 비롯하여 강군건설위업수행에서 우리의 국방과학 및 군수공업부문이 거대한 활약을 보여준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결론에서는 국가경제전반이 장성추이를 확고히 하고 인민들의 복리와 직결된 실제적인 결실들을 이룩한데 대하여 지적되였다.

압연강재는 127%, 유색금속은 106%, 질소비료는 103%, 전력은 101%, 석탄은 110%, 세멘트는 101%, 통나무는 104%, 수산물은 101%, 철도화물수송량은 108%, 천은 101%, 알곡은 107%로서 살림집건설을 포함하여 인민경제발전

에서 방대한 큰물피해복구과제가 완수되어 농촌문화도시의 새 변혁상이 펼쳐짐으로써 지방건설의 새 경지를 개척하고 무진장한 자생자결의 힘을 과시하면서도 당원들과 청년들, 인민군군인들을 애국적인 실천투쟁에서 성장시키는 성과를 쟁취하였다.

결론에서는 과학 및 문화분야에서 전인민적인 창조투쟁과 국가부흥발전을 촉진하고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결실들을 안아온데 대하여 언급되였다.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핵심과제, 중점과제들이 완수되고 기간공업과 경공업, 농업을 비롯한 여러 경제부문의 생산장성과 인민생활향상에 절실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진일보가 이룩되었으며 교육, 보건, 문학예술분야에서도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경주되였다.

우리 여자축구선수들이 아시아컵경기대회와 월드컵경기대회들에서 련전련승을 기록하고 력

기와 탁구, 권투, 태권도 등 여러 종목의 국제경기들에서 아시아의 패권, 세계패권을 확고히 쟁취한것도 올해 총화에서 당당히 한자리를 차지하는 괄목할만한 성과이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지방의 동시균형적발전과 전국인민들의 실제적인 생활향상을 위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책정하고 그 완벽한 첫 실체들을 떠올림으로써 전국인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창조적의욕과 자신심을 배가해준데 대하여 긍지높이 언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의 사상과 령도를 일심으로 받들어 맞다드는 도전과 난관들을 과감하게 이겨내고 당결정을 충실하게 관철함으로써 5개년계획수행의 결정적인 한해를 즐기찬 분투와 애국헌신의 의의있는 창조적, 혁신적성공들로 가득채운 온 나라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과 청년들에게 당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뜨거운 감사를 보내시였다.

결론에서는 국가적인 재해방지능력이 미숙하고 건설사업을 과학적인 토대우에서 진행하지 못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우리의 전진과 발전을 저애하는 일련의 편향과 결점들에 대하여 지적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완결하면서 다음단계의 발전로정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공정을 실속있게 추진하는것을 2025년도 사업의 총적방향으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정책적과업들을 밝히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경제전반의 장성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금속, 화학, 전력, 기계, 석탄, 철도운수를 비롯한 기간공업부문이 점령해야 할 목표들을 명시하시였다.

결론에서는 새 년도에도 방대한 건설투쟁을 전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리상실현으로 또 한번 비약할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2025년에 화성지구 4단계 살림집건설을 추진하여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을 마감하는것과 함께 검덕지구 살림집건설을 끝내고 농촌살림집건설을 계속 밀고나가며 특히 지방중흥의

대업을 가속화하기 위한 산업 및 공공시설건설에 힘을 넣으면서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에서 얻은 경험에 토대하여 또다시 시범적으로 다른 지역에 바다가양식사업소를 훌륭히 일떠세워야 한다.

결론에서는 산림조성과 국토관리, 생태환경보호사업을 개선하며 국가적으로 재해방지사업과 관련한 통일적인 지휘체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구조용장비들과 구조물자비축 등 재해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며 큰물경보의 과학성과 정확성, 신속성을 보장하여 재해를 최소화할데 대하여 지적되였다.

또한 우리 나라의 경제구조와 구체적실정에 부합되면서도 경제전반을 통일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체계와 방법, 계획화사업과 가격사업을 개선하는것을 비롯하여 절실한 방법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힘을 넣어 예견된 경제장성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생활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것은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기본과업이라고 하시면서 인민생활과 관련하여 책정하고 추진해온 주요정책적과업들을 더욱 완강하게 내밀어 다음해에는 보다 뚜렷한 성과들을 안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2025년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과업은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점령하며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에 농업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것이다.

결론에서는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과학농사를 중시하며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집행을 떠메고나갈 인재대오, 사회주의농촌을 변혁시킬 담당자들을 체계적으로 많이 키워내는것을 비롯하여 나라의 농업생산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언급되였다.

경공업부문에서 질제고를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고 기초식품과 필수소비품들의 질을 개선하는데 힘을 넣으며 특히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사회주의적시책을 책임적으로 집행할데 대하여 강조되였으며 수산부문의 물질적토대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실천방도들이 명시되였다.

결론은 사회주의전면적발전으로의 첫단계 개척투쟁, 변혁투쟁을 결속하게 될 새 년도의 진군에서 과학과 문화전선의 역할증대를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과학계가 총분기하여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마지막돌격전의 승리를 확실하게 안받침하고 새로운 발전단계에로 이어놓는 성공적인 결실들을 이루어내야 한다.

보건부문에서는 치료예방사업을 현실에 부단히 접근시키고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봉사의 질을 높이며 그 어떤 세계적인 보건위기에대처할수 있는 방역토대를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결론에서는 문학예술부문과 출판보도부문, 체육부문이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창조, 위력한 언론공세, 우승의 체육성공으로 시대를 진감시키고 온 나라를 격동시키며 혁명적기세를 앙양시켜나갈데 대하여 중요하게 언급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조국의 발전사에 위대한 승리와 변혁의 리정표를 세우게 될 다음해 투쟁에서 활력있게 움직여야 할 력량은 근로단체조직들이라고 하시면서 특히 청년동맹조직들에서 우리당 청년중시정치에 담겨진 뜻과 의도를 명줄로 간직하고 청년동맹일군들과 동맹원들을 혁명의 참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올해 우리 국가의 국제적지위를 제고하고 대외적진지를 공고히 다지는데서 이룩된 성과들과 자주세력권의 장성과 약진이 두드러지고 패권세력권의 립지가 급격히 약화실토되고있는 현 국제정세의 특징에 대하여 개괄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은 준엄한 지역정세와 류동적인 국제관계구도변화에 기민하고 령활하게 대응하면서 신성불가침적인 우리 국가의 주권적권리들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전망적인 국익증대와 국위선양의 견지에서 중대한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성과들을 이룩하였으며 원칙적인 대외정책적립장과 투쟁방향을 철저히 견지함으로써 정의로운 다극세계건설을 힘있게 견인하는 대표적이고 강력한 자주력량으로서의 국제적지위를 확고히

차지하였다.

결론에서는 대외부문에서 당의 대외전략적구상과 의도에 맞게 주동적이고 공세적인 대외활동으로 우리 혁명에 보다 유리한 대외적국면을 마련해나가기 위한 전략전술적과업들이 제시되였다.

미국은 반공을 변함없는 국시로 삼고있는 가장 반동적인 국가적실체이며 미일한동맹이 침략적인 핵군사뻘력으로 팽창되고 대한민국이 미국의 철저한 반공전초기지로 전략된 현실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명백히 제시해주고있다.

결론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망적인 국익과 안전보장을 위하여 강력히 실시해나갈 최강경대미대응전략이 천명되였다.

대외사업부문이 국위선양, 국익수호의 원칙에서 주권적권리수호투쟁을 과감히 벌리며 우리 국가의 존엄과 국익을 존중하는 친선적이고 우호적인 나라들과의 관계발전을 적극 도모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이 명시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한 혁명적당군으로, 사상과 기술강군으로 철저히 준비시킬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인민군대에서는 정치사상강군화를 군건설의 제1의 전략적과업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우리 군대를 사상의 힘과 위력으로 백승하는 혁명강군으로, 모든 장병들을 정신력의 최강자, 참된 애국군인으로 역세계 키우며 특히 투철한 대적의식과 절대불변의 주적관, 철저한 결전의지를 만장약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야 한다.

현대전의 요구와 양상에 맞게 그리고 변화되는 적들의 전쟁기도와 수행방식에 대처하여 우리 식의 전법연구를 심화시키고 작전지휘의 정보화, 현대화실현에 계속 박차를 가하며 과학적인 훈련형식과 방법을 부단히 연구적용하여 인민군대의 전쟁수행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하여야 한다.

민방위부문의 전쟁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기 위한 사업도 계속 강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가증되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군사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국방과학기술의 가속적인 진보와 방위산업의 급진적인 발전으로 자위적전쟁억제력강화를 더욱 믿음직하게 담보할데 대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 제8차대회 결정을 빛나게 완수하기 위한 다음해의 투쟁은 해당 부문과 단위의 정치적참모부인 당조직들로 하여금 그 어느때보다도 자기의 기능과 활동성을 보다 배가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당조직들에서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더욱 분발하여 제시된 투쟁목표들을 무조건 점령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박력있게 전개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특히 전당의 당일군들이 구호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에 담겨진 참뜻을 다시금 똑똑히 새기고 당중앙의 뜻대로 인민을 위한 일에 심신을 깡그리 바쳐나갈데 대하여 중요하게 지적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앞으로도 류레없이 극난한 형세는 지속될것이지만 건국 이래 미증유의 새 변혁시대를 열어온 올해의 격렬한 투쟁행정에서 찾은 귀중한 경험과 교훈, 더 백배해진 자신심과 주체적힘은 우리가 목적인바를 반드시 빛나는 성취에로 추동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모두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보다 막중한 임무와 책임감을 두어깨우에 억척같이 걸머지고 총공격전의 선두에서 2025년의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위하여 신심드높이, 더욱 과감하게 투쟁해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전당의 당원들과 전국인민이 충성과 애국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 자력으로 떠올린 2024년의 영광을 2025년에로의 계속적인 발전과 성공에로 빛나게 이어놓고 국가부흥의 력사적진군을 비상히 가

속하기 위한 투쟁과업과 방략들이 뚜렷이 명시된 김정은동지의 결론에 우렁찬 《만세!》의 환호와 열렬한 박수로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전원회의는 둘째 의정 《당중앙검사위원회 2024년도 사업정형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해당 의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보고에서는 새시대 당규률건설로선관철과 당사업과 당활동을 재정물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들이 언급되고 각급 당검사위원회들에서 발로된 편향적문제들이 엄정하게 지적되었다.

전원회의는 당중앙검사위원회의 2024년도 사업정형에 대해 해당한 평가를 하였다.

전원회의는 셋째 의정으로 《우리 당의 새로운 지방발전정책과 금후과업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중대한 정치적문제, 최대의 숙원사업으로 간주하고 최우선적인 혁명과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있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은 전국의 인민들에게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유족하고 문명한 새 생활을 제공하며 모든 지역의 발전수준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것을 목적으로 한 우리 당과 국가에 있어 창당 이래, 건국 이래 처음으로 되는 사변적인 결단이며 전례없이 방대한 창조투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도전과 난관이 의연 엄혹하고 이제 남은 5개년계획수행기간에 추진, 완수해야 할 과제들이 아름답것임에도 불구하고



근 80년간 리상으로만 되어온 지방변혁의 중장기과제를 단연코 정책화하여 지체없이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진입한것은 그야말로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일대 혁명이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러한 거대한 변혁적로선, 지방발전의 실천강령을 확정하고 손색없는 실체로 옮겨놓는데는 정말 쉽지 않은 숙고와 용단, 분투가 요구되었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모든 지역을 균형적으로, 동시적으로 진흥시키는것은 전면적발전에로 향한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중요한 전략적과업인 동시에 당과 정부의 기본정치리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더욱 철저히 구현하고 발양하기 위한 절박한 정치적과제로도 된다고 언명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올해 1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당과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매해 20개의 시, 군들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을 속속 일떠세움으로써 10년을 기한으로 하여 전국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계단 높이기 위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지방발전정책실현의 전위에 선 군인건설자들이 당의 존엄과 군대의 명예를 걸고 비상한 책임감과 량심으로 일관된 백방의 노력을 건설의 완벽한 질적보장에 기울임으로써 지방중흥의 첫 산아인 새 공장들을 우리 시대의 사상과 국력, 문명의 높이에 상응한 창조물들로 손색없이 일떠세웠으며 기계, 전자공업부문을 비롯하여 자재와 설비, 기술보장을 담당한 여러 부문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도 견인불발의 완강성과 창조력을 발휘하여 생산과제수행과 연구개발사업에서 귀중한 결실들을 이룩하였다.

이와 함께 동해안의 신포시에 바다가양식업의 새로운 표본으로 되는 현대적인 바다가양식사업소가 건설되어 바다를 끼고있는 시, 군들이 자체로 살아나갈수 있는 훌륭한 경험을 창조하고 지방경제의 특색있는 발전과 장성을 이룩할수 있도록 적극 도모하고 추동하는 사업들도 각방으로 추진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지방발전정책실행의 첫 산아들이야말로 참으로 영예롭고 보람스러운 우리 투쟁의 결실이며 그 무엇에 비길데 없는 귀중하고 자랑스러운 변영의 증명이라고 하시면서 비록 당과 정부앞에 일감이 배가되고 걸머진 중하는 더 무거워졌지만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비상히 상승, 확대되었으며 사회주의건설은 획기적전진의 새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이 시, 군들마다 몇개의 지방공업공장들을 세우는것만으로는 지방에 남아있는 세기적락후성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올려놓기에 불충분하고 부족하다는데 대하여 류의하고 전국의 시, 군들에 보건시설과 복합형문화중심, 량곡관리시설을 추가적으로 더 건설하기로 한 의도에 대하여 언급하시며 3대필수대상건설이 가지는 의의와 구체적인 건설방향에 대하여 개괄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현 단계에서 상기 건설대상들을 정확히 실용성있게 완성하고 원만히 운영할수 있게 하여야 지방발전의 근간을 확실하게 세울수 있으며 시, 군들이 동시적으로 변모되고 부흥하는 활기찬 국면을 열어놓을수 있다고 하시면서 지방공업공장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선진적인 보건시설과 과학교육 및 생활문화시설, 량곡관리시설까지 병행하여 건설하는것을 당의 새로운 지방발전정책에 정식 포함시킬것을 전원회의에 제의하시였다.

셋째 의정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지방의 세기적락후성에 중지부를 찍고 지방중흥의 력사적위업을 가속화해나가기 위한 특단의 조치와 실행대책들이 뚜렷이 명시된 지방발전대강에 절대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지방발전에서 필수적인 선진적보건시설과 복합형문화거점, 일체화된 량곡관리시설을 지방공업공장들과 병행하여 건설할데 대한 우리 당의 새로운 지방발전정책이야말로 인민을 위한 고생을 천분으로 여기시고 만짐우에 만짐을 덧놓으시는 총비서동지께서만이 결행하실수 있는 중대국사이며 력사적대업이라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당중앙의 숭고한 뜻을 일심전력으로 받들고 지방의 변혁과 개변을 다계단으로, 립체적으로, 공세적으로 이룩해나가기 위한 거창한 투쟁을 힘있게 견인하는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함으로써 새시대 지방발전정책의 완벽한 실행을 철저히 담보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전원회의는 넷째 의정 《나라의 교육로대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실시할데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해당 의정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보고자는 지난 8월 교육사업은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양보할수 없는 제1의 국사이라고 하시면서 수해지역의 학생들모두를 평양에 데려다 공부시키도록 특별조치를 취해주시고 몸소 4.25려관에 꾸려진 립시교실들을 찾으시여 새 학기 교육준비정형을 료해하시며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후대관은 우리모두에게 학생교육문제, 교육조건보장문제를 어떤 자세와 립장에서 대하여야 하는가를 다시금 똑똑히 새겨주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현시기 우리 나라를 인재강국, 사회주의 교육강국으로 빛내이는데서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는 전반적인 교육로대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위하여 국가적으로 대책하여야 할 문제들을 전원회의에 제기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넷째 의정에 대한 결론을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교육사업은 어느 시기, 어떤 단계에서나 우선권을 부여하고 최대의 공력을 들여야 할 제1의 국사이며 부단히 진보해야 하는 가장 책임적인 중대사이라고 하시면서 교육진흥의 선차성과 필수성, 그 의의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제8차전원회의가 제시한 과업에 따라 나라의 교육구조를 선진교육을 줄수 있게 고치고 교육내용과 방법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실천적인 조치들이 강구되고있으며 교육자후비들을 전망성있게 키우는것과 함께 학생들을 위한 사회

주의적시책이 일관하게 집행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최근년간 자부할만한 질적변화들도 가져왔지만 전반적인 교육로대는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교육부문의 현 실태를 엄밀하게 분석하시고 교육로대강화를 위하여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국가적힘을 투하여 해결하여야 할 당면하고도 중장기적인 과업들을 천명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세계적으로 교육을 제일 중시하고 교육이 제일 발전된 국가건설을 목표로 이상 우리는 학용품과 교구비품, 교육기자재문제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교육자들과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사업조건, 학습조건을 마련해주는 방향으로 확고히 나아가 한다고 하시면서 이번 전원회의에 상기의정을 특별히 상정시킨 의도와 최단기간내에 나라의 교육로대를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기 위한 실행방도들을 밝히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교육로대강화에서 제일 큰 몫을 차지하는 학교개건현대화를 국가적인 사업으로 드림없이 강하게 밀고나가며 앞으로 10년 안에 전국의 모든 학교들을 일신하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을 근기있게 추진하여 반드시 끝장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대책적문제들을 제시하시였다.

결론에서는 보통교육부문에서 기초교육의 질을 높여 모든 학생들의 지적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키며 교육자들의 자질을 제고하여 교육부문을 전반적으로 추켜세우고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수준차이를 줄일데 대하여서와 국가적으로 장애자들을 위한 교육지원체계를 세우는것을 비롯하여 교육부문이 자기의 목적과 사명을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제들이 강조되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고 사람들의 성장발전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교육사업은 마땅히 전사회적인 관심사로 되어야 하며 오늘 우리 혁명실천은 교육지원사업에 더욱 힘을 넣을것을 요구하고있다고, 당과 혁명의 전도, 조국의 앞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책임지려는 일군이려면 교육문제해결에 항상 주목을 돌리며 크든작든 자기 소관으로 떠맡아 풀어나갈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교육진흥에 국가의 전면적 부흥, 지방중흥과 농촌진흥의 줄기잡과 양양함도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창조와 변혁의 진폭이 커질수록, 부과된 혁명과제가 거창할수록 교육을 항상 선차에 놓고 우선권을 부여할 것이며 교육사업에 대한 전사회적인 관심을 더욱 고조시키고 국가적지원과 투자를 계속 늘어나갈 것이라고 확언하시었다.

다섯째 의정토의와 관련하여 전원회의는 국가예산심의조를 조직하여 2024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5년도 국가예산안을 검토, 심의하기로 하였다.

전원회의는 여섯째 의정으로 《당내기구사업에 대하여》를 토의하고 해당 결정서를 일치가 결하였다.

전원회의는 일곱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전원회의는 조선로동당 총비서동지께서 의정토의에서 하신 말씀과 강령적인 결론들의 사상과 정신에 립각하여 2025년도 투쟁과업의 철저

하고도 정확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를 2일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이 분과별로 연구 및 협의회를 지도하였다.

협의회들에서는 결정서초안들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에 기초하여 올해의 투쟁성과들을 더욱 공고히 하고 증폭시키기 위한 문제들이 적극적으로 토의되었으며 이 과정에 과학적이며 혁신적인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4차 정치국회의가 12월 27일에 소집되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들에서 종합된 의견들을 검토하고 결정서초안들을 수정보충하여 전원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국가예산심의조가 2024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5년도 국가예산안을 심의한 정형을 검토하고 전원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조용원동지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결과를 전원회의에 보고하였다.

전원회의는 결정서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의 2025년도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와 《새로운 지방발전전략실행을 강력히 추진하여 국가의 전면적부흥을 앞당길데 대하여》, 《나라의 교육로대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데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전원회의는 2024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5년도 국가예산안을 최종심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회의에 제출할것을 승인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를 결속하시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다음해는 우리 당이 창건 80돐을 맞이하는 의의깊은 해인 동시에 제8기 당중앙위원회가 자기 사업을 시대앞에, 인민앞에 총화짓는 해이라고 하시면서 개혁과 약진의 4년간을 초월하는 비상한 슬기와 용맹, 책임적인 노력과 즐기찬 분투로 임기의 마지막해인 2025년을 우리당 령도사에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력사의 분수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우리 국가의 전면적부흥발전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 전당,

전국, 전민이 충분기하여 기적적성과들을 쟁취함으로써 당 제9차대회를 승리자들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땃땃하게 맞이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24년 12월전원회의는 수천만 인민들의 크나큰 믿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당정책관철의 제1서렬, 제1전위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직책상임무에 끝까지 충실할 전체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비등된 열의속에 자기의 책임적인 사업을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는 가장 정의로운 리상과 원대한 포부를 안고 용진하는 우리 위업의 전망성과 잠재력에 대한 락관을 백배해주고 자존, 자력의 불가항력적 힘으로 우리 국가의 전면적통성기를 과감히 당겨오기 위한 력사적인 진군에 거대한 박진력을 더해준 의의깊은 계기로 우리 당력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 * *

옥돌공예 《룡과 조룡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 길림성 훈춘시에서 살고있는
해외동포가 드린 선물 2017년 1월

조국의 현실을 조명한 노래

- 노래 《친근한 아버지》를 들으며 -

최근 조국인민들속에서 널리 애창되고있는 노래가 있다.

지난해 4월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준공을 기념하는 공연에서 울려 퍼진 노래 《친근한 아버지》이다.

출근할 때도 부르고 퇴근할 때도 부르며 일터에서도 휴식참에도 누구나 부르고있다.

노래가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수천만의 심금을 들어잡았다.

국내를 벗어나 해외에서도 이 노래는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은 이 노래가 울릴 때면 룰동을 해가며 부르고있다. 그들은 자기 령도자에 대한 조선사람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알게 해주는 노래이다, 정말 놀랍다, 조선으로 가고싶게 만드는 노래이라고 하였다.

노래 《친근한 아버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칭송한 노래이다.

가사에도 있듯이 우리 인민은 령도자를 아버지라고 즐겨 부르고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 이르는 말인 아버지라는 표현에는 자기 령도자에 대한 조국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심과 친근감이 어려있다.

하다면 수천만이 왜 그토록 자기 령도자를 다름아닌 아버지라는 부름으로 부르고있는지.

이에 대한 대답을 여러 사람들의 반향속에서 찾기로 한다. 평안북도 의주군에서 피해복구기간 평양에 올라와 생활한 조인남로인은 자기의 심중을 이렇게 터놓았다.

《지금도 지난해 피해를 입었을 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섭니다. 그 누구보다먼저 우리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제일먼저 찾아오실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이께서는 습기찬 가설 천막안에까지 들어오시여 허물없이 앉으시고 우리들의 생활형편을 하나하나 료해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 피해복구기간 수해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이 평양에 올라와 생활하며 배우도록 중대조치를 취해주시였습니다.

우리들은 평양체류의 나날 해수욕, 참관, 공연관람과 명승지답사를 비롯하여 다채로운 문화

정서생활을 마음껏 향유하며 꿈만 같은 나날을 보내였습니다. 정말 어머니처럼 따사롭고 아버지처럼 자애로운 품속에서 우리는 복을 받아안았습니다.》

인민과 단 한치의 간격도 없이, 인민이 어려워할수록, 힘들어할수록 더 자주, 더 가까이 다가가시여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인민이 바라는것을 국정에 담아 모든 소원을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시다.

만년약국 판매원 김은경은 《3년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고열속에 심히 앓으시면서도 인민을 먼저 생각하시며 밤중에 우리 약국을 찾아주시였습니다.

약국에 들어서시는 그이를 우리르며 나는 금방 병을 앓고난 뒤여서 이런 위험한 곳에 오시면 어떻게 하시는가고 아뢰이면서 뒤로 성큼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더 가까이 다가오시며 약품공급실태를 료해하시였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때의 자애로우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모습을 잊을수 없습니다.》라고 진정을 토로하였다.

조국땅 그 어디에 있건, 아이이건, 어른이건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인민과 기쁨도 아픔도 함께 나누시고 사랑하는 인민의 안녕과 복리를 위함이라면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헤치시며 혼심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이다.

하기에 노래를 창작한 안분희작가는 《나는 가사에 내가 만나본 사람들의 심정을 그대로 담았다. 그러고보면 이 노래는 나 하나의 작품이 아니라 이 나라 인민이 지은 집체작이라고 말할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인민들의 진정넘친 토로를 통해서 세상사람들은 왜 조국인민 누구나가 자기 령도자를 아버지라고 스스로없이 부르며 이 노래를 애창하는지 알수 있을것이다.

친근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조국인민들의 앞길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엄향심

황금해력사창로의 나날을 돌이켜보며

- 8월25일수산사업소 지배인 윤용일의 수기 -



10여년전까지만 해도 우리 8월25일수산사업소는 그리 알려지지 않은 사업소였습니다. 물질기술적토대도 물고기잡이량도 시원치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우리 수산사업소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찾아 오실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날은 2013년 5월 27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리었는데 이에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사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었습니다. 그이께서는 먼저 부두로 나가시어 선창에 있는 고기배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시었습니다.

그 배들은 그이께서 취해 주신 조치에 의해 새로 건조되고 이름도 달아주신 《단풍》호고 기배들이었습니다.

일꾼들로부터 고기배들이 정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배에 오르시어 배의 성능을 료해하시었습니다.

그이께서는 현대적인 고기배들과 어구들이 마련된데 맞게 어로공들이 설비들에 정통하고 관리운영을 잘하여 만가동하여야 한다고, 앞으로 물고기잡이에서 대중적혁신의 봉화를 높이 들어야 한다고 하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사업소에서는 물

고기를 한해에 4 000t씩 잡아야 한다고, 이것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 군인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저는 기어이 4 000t의 물고기를 잡겠다고 결의다지었습니다.

저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물고기잡이계획을 수행하면 자신에게 편지를 하라고, 기쁜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겠다고 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로부터 4 000t의 물고기잡이과제를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아니라 부탁으로 받아안은 우리 수산사업소 일꾼들과 어로공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하였습니다. 모두가 《단풍》호고기배를 타고 조선동해의 파도세찬 어장을 주름잡아달리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어로전을 벌리었습니다. 하여 단 6개월만에 그이께서 주신 물고기잡이과제를 수행하는 기적을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고기잡이과제를 넘쳐수행한 기쁨과 군인들에게 물고기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고있다는 소식을 담은 편지를 그이께 삼가 올리었습니다.

편지를 받아보신 그이께서는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었으며 그날로부터 4일후인 2013년 12월 15일에 우리 수산사업소를 또다시 찾아주시었습니다.

그이께서는 인사를 올리는 저에게 편지를 받아보고 너무 기뻐 이렇게 왔다고, 수산사업소에서 물고기를 그렇게 빨리 잡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다고 하시며 올해 물고기잡이에서 사업소의 《단풍1》호가 1등을 하였다는데 응당 선두에 서야 한다고 하시었습니다.

이어 물고기절임창고로 가신 그이께서는 물고기가 그득그득 쌓여있는것을 보시며 그야말로 물고기바다, 물고기사태라고 하시는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물고기바다가 펼쳐진 이 흐뭇한 광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절임탱크턱에 스스럼없이 걸터앉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앉으시면 안된다고 말씀드리며 장갑을 갈아드리려고 하였지만 그이께서는 사양하시면서 우리를 자신의 곁으로 불러주시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우리는 그이를 한자리에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대풍을 이룩하여 군인들에게 물고기를 풍족하게 먹이게 된것이 얼마나 기쁘시었으면 그이께서는 물고기팽동저장고를 돌아보시고 사업소구내에 이르는 전 과정에 기쁨을 금치 못해 하시며 우리 일꾼들과 어로공들의 성과를 거듭거듭 치하해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의 감사까지 주시었습니다.

그이께서는 사업소에 현대적인 설비들도 갖추어주도록 하시었습니다.

그러시고는 우리 인민들이

최고사령관인 나를 믿고 귀한 자식들을 나에게 맡겼는데 수산사업소에서 군인들에게 물고기를 풍족하게 먹일수 있게 하였으니 최고사령관을 진심으로 도와주었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이날 떠나시기 앞서 그이께서는 올해 조선인민군 수산부문 열성자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였는데 평양에 올라오면 우리들과 기념사진도 찍으며 자신께서 표창수여식에도 참가하겠다고 하시었습니다.

응당 할 일을 한 우리들의 성과를 그토록 귀중히 여기시며 거듭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그이의 사랑에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씀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이날 그이께서는 앞으로도 수산사업소가 전군의 앞장에서 나가야 한다고, 명년에도 물고기대풍을 마련했다는 기쁜 소식을 기다리겠다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수산사업소를 떠나시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정치용어해설

멸사복무의 기풍

멸사복무기풍은 인민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조국의 모든 일꾼들이 높이 발휘해나가고 있는 헌신적인 사업태도와 작풍을 말한다.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은 조선로동당의 핵심이고 골간인 일꾼들의 숭고한 사명이다.

조국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보다 더 영예롭고 보람있는 일은 없다.

언제나 인민을 먼저 생각하고 인민들이 걱정하는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해 늘 사색하고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며 진심으로 일하는 일꾼들을 가리켜 사람들은 인민의 심부름꾼, 참된 총복이라고 부르고있다.

오늘 조국의 일꾼들은 위민헌신의 려정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품모를 적극 따라배워 진정으로 인민을 섬기고 성심다해 받들어 나가기 위해 애써 노력하고있다.

언제나 대중과 교락을 같이하고 모든 일을 조직하고 집행하는 데서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찾아하는 수많은 일꾼들이 있어 부강번영하는 조국의 래일은 앞당겨지고있다.

* * *

조선로동당의 깊고도 억센 뿌리

조선로동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80년이 되어 온다.

장구한 그 기간 조선로동당은 창당초기의 리념과 각오를 굳건히 고수하며 최장의 사회주의집권사를 새겨가고있는 원로적인 당, 가장 권위있는 당으로 존엄떨치고있다.

전당의 길도 쉽지 않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어려웠던 전진과 발전의 전 행정에서 조선로동당은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력사의 생눈길을 헤쳐왔고 시련의 고비도 넘었으며 남들이 엄두도 못내는 대응단도 주저없이 내려왔다. 그길에서 조선로동당은 언제 한번 탈선이나 연착, 정착도 없이 공화국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향도 하여왔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년대와 세기를 이어 비상히 상승하여온 공화국의 국력과 위상, 존엄과 영광은 다름아닌 조선로동당의 권위이고 강대성임을 긍지높이 구가하고있다.

그 어떤 광풍에도 흔들림없는 거목마냥 날로 장성강화되는 조선로동당의 위상은 그 력사적뿌리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거목이 끄떡없자면 뿌리가 깊고 든든해야 한다.

돌이켜보면 조선로동당의 뿌리는 지난 세기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였던 일제를 반대하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내리기 시작하였다.

혁명을 전진시켜나가는데서 당의 령도를 중시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26년 10월 17일 새세대 청년들로 라도계국주의동맹 《ㄷ. ㄷ》를 결성하시였다.

《ㄷ. ㄷ》의 결성은 우리 나라에서 새형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당창건을 위한 출발점으로 되었다. 한것은 《ㄷ. ㄷ》의 강령이 조선로동당의 강령의 기초로 되었고 《ㄷ. ㄷ》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은 당건설과 당활동의 원칙으로 되었으며 《ㄷ. ㄷ》가 키워내기 시작한 새세대 혁명가들은 당창건의 골간으로 되었기때문이다.

《ㄷ. ㄷ》결성이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0년에 있는 카툰회의에서 자주적으로 당을

창건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종파분자들처럼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당장 당창건을 선포하려 하거나 국제당의 승인을 받으려 할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체의 힘으로 새로운 혁명적당을 창건하여야 한다는 고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고 당중앙을 선포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충분한 준비밑에 당의 기층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것을 부단히 확대강화하는 방법으로 당을 창건하며 그 준비사업을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카툰회의에서 제시된 당창건방침에 따라 1930년 7월 카툰에서 첫 당조직이 무어지게 되었으며 그것을 모체로 하여 각지에 당조직들이 확대되었다. 뿐만아니라 국내의 온성일대와 두만강연안의 동만일대, 북부국경일대에 수많은 기층당조직들이 나오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당조직지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적극 추진되었다. 하여 현당위원회로부터 부락의 당세포에 이르는 당조직지도체계가 서게 되었으며 반일인민유격대안에는 련대에 당위원회, 중대에 당세포, 소대에 당분조가 조직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반일인민유격대가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되었을 때에는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가 조직되어 부대안의 각급 당조직들은 물론 지방당조직들까지 장악지도하였다.

이 나날에 조선혁명의 핵심대렬이 무수히 자라나고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대오의 사상지적통일단결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당창건을 위한 대중적지반이 닦아지게 되었다.

이렇듯 당창건의 깊고도 억센 뿌리가 마련되었기에 나라가 해방되어 두달도 안되는 194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이 자기의 창건을 선포할 수 있었다.

강경수

수필

열려진 고향집사립문앞에서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신 100돐을 맞으며 -

얼마전 나는 조국을 방문한 동포들과 함께 만경대고향집을 찾았다.

열려진 고향집사립문앞에 서니 누군가 조용히 이렇게 속삭였다.

《문에 빗장이나 걸개가 없구나.》

그의 말을 들으며 나도 새삼스레 사립문을 보았다.

문이라고 하면 의례히 있어야 하는것으로 여기는 빗장이나 걸개도 없이 사시장철 한본새로 열려있는 고향집의 사립문.

사립문을 보고 또 불수록 이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하직하고 고향을 떠날 때에는 모두들 나라를 찾고서야 돌아오겠다면서 씩씩하게 사립문을 나섰다, 그러나 그들가운데서 조국으로 돌아온것은 나 하나뿐이었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의 구절구절이 가슴에 마쳐와 눈굽이 축축해졌다.

14살 어린신 나이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시며 고향집사립문을 나서시여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신 위대한 수령님.

되새겨볼수록 해방후 만리타향에 무주고혼이 되어 누워있는 선친들의 유해마저 모시지 못하고 고향집사립문을 홀몸으로 들어서시였던 위대한 수령님의 비통하신 심정이 나의 가슴을 친다.

잊을수 없는 80년전 그날을 눈앞에 그려본다.

항일의 그날 꿈속에서도 자주 그려보시던 고향집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을 환호속에 뜨겁게 맞이한 만경대.

하나 온 민족이 개선장군으로 떠받든 사랑하는 손자분을 맞이한 조부모님들의 가슴은 왜서 그처럼 쓰리고 아프셨던가.

맨발차림으로 고향집사립문에 달려나오시여 위대한 수령님을 부둥켜 안으시고 할머니께서 하시던 눈물젖은 그 말씀.

아버지, 어머니는 어데다 두고 이렇게 혼자 왔는가, 같이 오면 못쓴다더냐고 위대한 수령님의 가슴을 두드리실 때의 할머니의 심정은 얼마나

쓰리고 아프셨으랴.

돌이켜보면 인류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일가분들처럼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불같이 살아오신 혁명가들을 일찌기 몰랐다.

만경대고향집을 조용히 감싸고 은은히 울리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의 노래소리에 실려 나의 눈앞에 어려온다. 전투의 실참이면 사무치게 그리운 고향집을 그려보며 노래를 부르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이.

우리 수령님도 인간이실진대 어찌 고향집이 그림자 않고 남의 집 처마아래서 외롭게 지내고있을 동생분이 걱정되지 않으시었으랴.

허나 신음하는 민족을 구원하지 않으시고서는 고향집으로 돌아갈수 없으시었기에 그이께서는 그 모든 그리움을 가슴속깊은 곳에 조용히 묻어두시고 혈전의 길을 헤쳐가신것 아니던가.

그이에게 있어서 그 길은 그리운 고향집으로 더 가까이 가는 길이였고 자식들을 깡그리 혁명의 길에 내세우신 조부모님들에게로 하루빨리 달려가는 길이었던것이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광복의 천리길에 이어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일제를 격멸하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오늘도 돌아오시지 못한 일가분들을 기다리는 듯 열려져있는 만경대고향집의 사립문으로 들어서시는 나의 생각은 더욱 깊어진다.

아니, 어찌 그분들이 고향집사립문에 남기신 것이 쓰라린 상실의 아픔과 사무치는 그리움뿐이라고 하랴.

그분들께서 나서신 그 사립문으로 오늘은 이 땅의 수천만 아들딸들이 들어선다.

만경대일가분들께서 지니시였던 혁명에 대한 굳은 신념을 모두가 간직하고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일떠세울 맹세를 안고...

고향집사립문은 모두에게 참된 애국의 길을 깨우쳐주며 오늘도 활짝 열려져있다.

엄향심

라자구등판에서

(전호에서 계속)

마로인한테는 집이 두채가 있었다. 아래채에는 우리가 들고 옷채에는 구국군패잔병들이 들어있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반쏘사상을 가진 사람들로써 쏘련이 공산국가라는 리유로 월경을 시도하지 않고 만주에 떨어진자들이었다. 패잔병들가운데는 오의성이 로모저하에 떨귀두고 갔다던 콕대대장의 부하들도 있었다.

맹소명은 려장을 풀어놓기 바쁘게 구국군의 맥을 짚어 봐야겠다고 하면서 자진하여 옷채의 패잔병들을 찾아갔다. 나는 그에게 구국군병사들이 우리와 손을 잡고 공동으로 움직일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타진해보라고 하였다. 맹소명은 콕대대장의 부하들중에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 1차적으로는 자기가 먼저 그들의 속심을 떠보고 승산이 보이면 김대장이 가서 정식으로 교섭을 해보는것이 어떤가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패잔병들을 만나고 온 맹소명은 어깨를 떨구고 우울한 표정으로 말하였다.

《련합전선은커녕 아무것도 못할 놈들입니다. 저놈들은 벌써 토비가 될 공론을 하고있습니다.》

마로인도 구국군패잔병들이 우리의 무장을 해제할 음모를 꾸미고있다는 정보를 주었다.

그들이 우리의 총을 탈취해가지고 비적의 대오를 확장할 계획이라는데였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고보니 우리는 모두 우리자신의 운명과 혁명의 전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주변에서 반일부대 병사들이 수천수만명 와글와글할 때에는 일본군과 싸움을 해도 당장 이길수 있을것같았는데 그들이 다 달아나고 없는데다가 우리 대오마저 18명밖에 남지 않고보니 그저 막연하다는 생각만 들었다. 왕청에 갔대야 총 여라문자루밖에 없으니 그걸 가지고 무슨 일을 치르겠는가. 연길에 있는 무기라야 총 몇십자루정도밖에 안될것이고 설상가상으로 저 무지막지한 패잔병들마저 우리의 무장을 빼앗겠다고 날치니 이 일을 어쩌면 종단 말인가? 라자구의 이름모를 등판까지 왔는데 왕청으로 돌아갈 길도 묘연했다. 이 일을 어떻게 할 작정이냐? 자신에게 반문도 해보았다. 무장을 쫓겨오고 다시 돌아가 지하투쟁이나 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고생스럽더라도 무장투쟁을 계속할것인가?

이런 동요가 없었다고 하면 진실을 외곡하고 력사를 위조하는것으로 될것이다. 나는 그때 나쁜 아니라 우리 집단에서 동요가 있었다는것을 숨기지 않으며 또 숨길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강철도 산화되면 변하는 법이다. 인간은 강

철도 아니거니와 그 강철보다 약하고 변이성이 많은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강철보다 훨씬 더 역세다고 말할수 있다. 강철은 자기 힘으로 산화과정을 막을수 없지만 인간은 자기의 사상속에서 일어나고있는 변화를 스스로 통제하고 조정할 능력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문제는 동요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그 동요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데 있는것이다. 인간을 만물의 령장이라고 하는것은 바로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조절할줄 아는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있기때문이며 혁명가를 위대하다고 하는것은 바로 그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역경을 순경으로 만들줄 아는 강의하고 창조적이고 희생적인 인간들이기때문이다.

나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향방을 잡지 못하였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한이 있더라도 무장투쟁을 계속해야겠는데 남아있는 대원들이란 모두 스무살도 채 안되는 홍안의 청년들이었다. 내자신도 아직은 경험이 어리다고 할수 있었다. 길림바닥에서 뼈라를 쓰고 연설이나 하며 돌아다닐 때에는 모두가 영웅호걸이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누구나 다 초학도들이었다. 지하공작을 할 때에는 방법이 많았지만 수만명의 우군을 다 잃어버리고 패잔병들만 남은 무인지경에서 18명의 행로를 어떻게 개척해야 하는가 하는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과제였다.

옷집에 든 패잔병들은 토비가 될것을 계획하였지만 우리는 그런 노릇을 절대로 할수가 없었다. 조직군중이 있는 곳에 가야 무슨 방법이 나서겠는데 조선인부락은 200리쯤 가야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어간도 일본군이 없는 골짜기가 없다는것이였다.

혁명이란 이다지도 간고한것인가, 불과 2~3년 동안이면 손쉽게 결판을 낼수 있으리라고 보았던 우리 혁명이 어쩌면 이렇게도 험한 벼랑끝에 와 서게 되였는가, 안도에서 나팔을 불며 도도하게 출발하였던 우리의 대오가 황량한 이산등에서 전진을 멈추고마는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이 부대를 무으려고 끼니를 건는것은 며칠이였고 잠을 이루지 못한것은 몇날몇밤이었던가. 이 부대를 위해 세상을 하직하시는 어머니의 곁에도 가있지 못하고 사랑하는 동생들과도 생리별을 한 내가 아닌가. 차광수도, 최창걸도 이 대오를 위해 청춘을 바치지 않았는가. 차광수는 돈화에 정찰을 나갔다가 전사하였다.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고 걸어가야 할 길을 생각하는 내 마음은 온 지구덩어리가 통채로 매달린듯 무겁기만 하였다.

내가 아궁앞에 앉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고있을 때 마로인이 내옆에 다가와 조용

히 물었다.

《자네가 책임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장이라는 사람이 눈물은 왜 흘리는가?》

《눈바람을 맞으면서 오느라고 그런가 봅니다.》

대답은 그런 식으로 굶뻐였으나 나는 사실 눈바람타이 아니라 앞날에 대한 걱정때문에 눈물을 흘리었던 것이다.

로인은 한참동안 나를 굶어보면서 길다란 채수염을 연방 내리쉴었다.

《자네가 저 옷체에 든 놈들때문에 근심하는 것같은데 너무 상심하지 말게. 내 오늘 저녁 좋은 곳에 데려다주겠으니 거기 가서 며칠 쉼 쉬라구. 한 스무날 쉬면서 공부도 하고 영양보충도 하면 머리가 제갈량처럼 잘 돌아갈걸세.》

밤중에 마로인은 깊은 잠에 푹아떨어진 우리들을 모조리 흔들어깨워 설음식으로 빚어놓은 만두를 먹이였다. 그리고는 한 50리 싹히 떨어진 곳에 있는 산막으로 우리를 안내하였다. 산막은 비행기도 볼수 없는 울창한 수림속에 자리잡고있었다.

산막집이라고 해야 한장정도의 샷자리나 겨우 깔수 있는 크기의 방이었는데 거기에 자그마한 헛간이 하나 붙어있을뿐이었다. 헛간에는 마로인이 옹노를 놓아서 잡아 얼군 노루와 토끼도 있었고 밀, 강냉이 같은 낱알과 망도 있었다.

《방은 좁지만 짚을 펴고 지내면 불편한대로 그럭저럭 급한 대목을 넘길수 있을거네. 여기에 숨어있으면서 몸들을 추세우라구. 바깥소식은 내가 며칠에 한번씩 와서 전해주지. 자네들이 이 산막을 떠날 때는 길안내도 내가 해주겠네.》

로인이 이런 말을 하면서 산막에 불을 지펴

줄 때 우리는 고마움에 목이 메여 다같이 눈물을 흘리었다. 것처럼 한적하고 쓸쓸한 등판에서 마로인과 같이 성실한 은인을 만난것은 누구에게나 쉽게 차례질수 없는 행운이었다. 대원들은 모두 《하느님》이 우리를 굶어본다고 롱을 하였다.

우리는 그 산막에서 보름 남짓하게 정양도 하고 학습도 하고 노루사냥도 하였다.

산막집에는 마로인이 가져다둔 책들이 많았다. 소설책도 있고 정치서적도 있었으며 위인들의 전기도 있었다. 마로인이 비록 깊은 산중에서 사냥을 생업으로 삼고있었지만 학식은 아주 풍부한분이였다. 여럿이 순번을 다투어가며 경쟁적으로 읽다나니 책은 어느것이나 다 보풀이 일고 너덜너덜해졌다.

책을 읽은 다음에는 반드시 소감을 발표하거나 일정한 주제를 정해놓고 논쟁을 벌리었다. 제가끔 맑스가 어떻게 말했고 레닌이 어떻게 말했다는 식으로 명제를 따로 인용해가면서 자기 주장을 론증하느라고 열을 올리었다. 맑스주의창시자들의 명제나 유명한 작가들의 명문 가운데서 몇가지씩은 다 뜯금으로 외워가지고 다닐 때였다. 그 당시에는 청년들이 모여앉기만 하면 손중산도 비판하였다. 그 누구를 숭배하는것도 멋이였지만 모두다 숭상하는 위인을 비판하는것도 하나의 멋으로 되고있었다.

그때는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할 때였다. 모두가 다 결작이고 영웅호걸이었다.

우리는 이 산막에서 앞으로의 행동방향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하였다.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겠는가? 아니면 왕청의 조선인부락에 가서 거기에 있는 별동대를 모아가지고 부대를 확대하여 투쟁을 계속할것인가?

누구나 다 투쟁을 계속하자고 결의하였는데 해룡에서 입대한 한 동무만은 몸이 약해서 우리들과 같이 무장투쟁을 계속할것같지 못하다

고 실토하였다. 그 동무의 체력이 유격투쟁을 할만큼 준비되지 못한것만은 사실이었다.

우리는 그가 그런 고백을 하는데 대하여 까박을 붙이거나 문제시하지 않았다.

《못가겠으면 여기서 직방 못가겠다고 말하는것이 좋다. 혁명은 억지로 하지 못한다. 강권이나 위협으로써는 할수 없는것이 혁명이다. 그러니 가려면 가고 투쟁을 계속하려면 남아서 투쟁해야 한다.》

나는 부대를 책임진 지휘관으로서의 자기의 견해를 이렇게 밝히고 각자가 스스로 결심을 채택하도록 시간을 주었다.

며칠후 우리는 한자리에 다시 모여앉아 대원들의 결심을 들어보았다. 일행중 16명은 죽는 한이 있어도 혁명을 계속하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런데 나머지 두명은 부대를 떠나게 해달라고 제기하였다.

해룡에서 온 동무는 이번에도 몸이 약해서 무장투쟁을 하지 못하겠으니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렇다고 자기를 비겁쟁이라고 인정하지 말아달라는 부탁도 하였다. 몸이 약해서 못하겠다고 하니 우리로서는 그의 요구를 무시할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우리를 따라다니기가 힘들면 집으로 가라, 우리는 그걸 허물하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꼴을 해가지고는 못간다, 옷이 다 껴져서 거렁뱅이꼴이 되었는데 그런 몰골로야 부모들품으로 돌아갈수 없지 않느냐, 가기는 가되 조선인부락에 가서 러비를 얻어가지고 의복이랑 해입고 가라고 하였다.

다른 동무는 쏘련에 넘어가서 공부를 좀 하겠다고 하였다.

《쏘련에 보증인도 없이 무턱대고 넘어가면 공부를 시켜주겠는지 로동을 시키겠는지 그건 알수 없는 일이다. 왕청에 가서 일을 좀 하다가 그곳과의 련계가 맺어지면 조직의 보증을 받아

가지고 떠나는것이 좋지 않는가.》

두 동무는 내 말을 긍정하면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하였다.

그후 우리는 마로인의 안내로 무사히 라자구 등판을 떠났다. 로인은 우리를 왕청현 전각루까지 안내해주었다. 참으로 친절하고 다심하고 인정깊은 로인이였다. 몇해후 우리가 근거지인 뽕에서 적들을 사정없이 답새기던 유격투쟁의 활성화가 도래하였을 때 나는 얼마간의 천과식량을 가지고 라자구등판을 찾아갔다. 그러나 마로인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

지금도 나의 기억속에는 마로인의 영상이 60년전의 모습 그대로 생생하게 남아있다. 어느때인가 나는 작가들에게 그 로인을 원형으로 하여 가극이나 연극을 하나 만들어보라고 하였다. 그 로인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는 가극이나 연극을 만들어낼수 있는 훌륭한 소재이다.

그 겨울에 우리가 라자구오지에서 굶어죽지 않고 얼어죽지 않고 총탄에 맞아죽지 않은것은 기적중의 기적이라고 말할수 있다. 나는 지금도 그때 무슨 힘이 시련속에서 우리를 일어서게 하였는가, 무슨 힘이 우리를 패배자나 락오분자로 만들지 않고 승리자로 만들어 항일의 기발을 그냥 추켜들게 하였는가고 자문하군 한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것은 혁명에 대한 책임감이었다.》라고 공지에 넘쳐 자답하군 한다. 그 책임감만 없었더라면 우리는 눈구멍이속에 그대로 주저앉아 두번다시 일어나지 못하였을것이다.

나는 그때 우리가 주저앉으면 조선이 다시 소생하지 못한다는 자각을 가지고있었다. 우리가 죽어도 조선을 구원할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더라면 우리는 라자구등판의 눈사태속에 파묻혀 더는 일어나지 못하였을것이다.

(끝)

거창한 변혁의 해

2024년



2024년 5월 문명부강한 우리 국가의 미래상이 응축된 청춘대기념비 전위거리 준공식이 진행되었다.



립을거리가 우리 당의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의 결정체, 사회주의문명의 본보기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섰다.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기에 들어선 조국은 가는 곳마다 창조와 혁신의 기상이 차넘치고 모든것이 빠른 속도로 변모되어가고있다.

지난 한해동안 전국도처에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갖춘 공장, 기업소들이 새로 일떠서거나 개건되었으며 수도의 새 거리건설, 지방공업공장건설, 농

촌살림집건설 등으로 온 나라가 부글부글 끓어번지였다.

2023년말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의 투쟁과업과 방도가 명시되어 전원회의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온 나라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았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온한해 침체와 답습, 부진을 배격하면서 당의 경제정책관철을 위한 사업들을 힘있게 벌려 의의있고 소중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금속, 화학공업이 대고조진군의 앞장에서 기운차게 내달렸다.

나라의 철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2024년을 긍지높이 결속하고있는 12월의 격동의 시기에 우리 식의 에네르기절약형산소열법용광로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뿐만아니라 원료, 자재보장과 생산공정들에 대한 과학기술적대책을 면밀히 세워나가는 과정에 전력과 전극소비를 대폭 줄이면서 용해시간을 단축할수 있는 새로운 레루강생산공정을 확립하였으며 연간 생산계획도 성과적으로 완수하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로운영과 우리 식의 철생산방법을 기술적으로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내밀어 전례없는 생산실적을 기록하였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와 청진제강소, 무산광산련합기업소와 은률광산, 흥남전극공장을 비롯한 각지 제강소들과 철광석생산기지, 보장단위들에서 원가를 최대한 낮추면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리었다.

한편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와 흥남비료련합기업소,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화학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생산공정과 설비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보장에 중심을 두고 경제기술적대책들을 강구하여 각종 화학제품생산계획을 원만히 수행하였다.

건재, 기계공업부문에서도 증산투쟁, 창조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금성뜨락또르공장 2단

계 개건현대화공사를 비롯한 국가적인 대상건설과 련관부문의 생산적양양을 추동하였다.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높이 받들고 많은 농장들에서 전해보다 정보당 논벼를 더 많이 거두어들여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하였으며 다수



2024년 2월 《지방발전 20×10 정책》 실현을 위한 첫 최공인 성천군 지방공업공장건설최공식이 진행되었다.



천리마라일공장에서는 수많은 건설대상들에 각종 리일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였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는 기초화학제품들의 자급률을 높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2024년 3월 세계급지의 남대생산지인 강동종합온실농장이 준공 및 조업하였다.

확농장, 다수확작업반, 다수확분조들도 적지 않게 배출하였다.

지난해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건설사업이 전례없는 규모로, 빠른 속도로 진척되었다.

평양에서는 화성지구 3단계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지방들에서 조국의 근 80년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세기적이며 거창한 혁명으로 되는 《지방발전 20×10 정책》관철을 위한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지방을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의 기초를 든든히 다지고 그 기반위에 사회주의리상향,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자는것이 조선로동당의 웅대한 국가건설전략이다.

인민들이 오랜 세월 리상으로만 그려보던 지방변혁의 꿈을 이룩해주시기 위해 늘 마음써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건설을 매해 20개 군씩 어김없는 정책적과업으로 당에

서 직접 들어쥐고 김화군과 같은 수준으로 모가 나게 집행하여 10년안에 전국의 모든 시, 군들 다시말하여 전국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계단 비약시키자고 하시며 이 정책을 《지방발전 20×10 정책》으로 명명해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지난해 2월말 성천군 지방공업공장건설착공식에 참석하시어 《지방발전 20×10 정책》실행이라는 우리 당의 최대의 숙원과 응지를 안으시고 첫삽을 박으시었다.

한해치고 가장 무더운 삼복철에도 피서지가 아니라 신포시와 원산시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건설현장의 수수한 가설천막에서 협의회들을 지도하시며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었다.

머나먼 길을 달려 신포시에 오신 그길로 곧장 모래먼지 흩날리는 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장에서 협의회를 가지신 그이께서는 전형적인 해안지역인 신포시에 본보기적인 바다가양식사업

소를 일떠세우고 확대도입함으로써 전국의 해안연선지역 시, 군들의 다각적이고 자립적이며 지속적인 발전토대를 마련할데 대한 대책들을 취해주시었다.

그런가 하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관광업의 새로운 발전의 길을 명시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지난해 8월말에 가진 주요협의회에서 새시대 지방발전정책은 마땅히 경공업공장건설에만 국한될것이 아니라 보건과 과학, 교육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선진적인 시, 군병원들과 과학기술보급거점, 량곡관리시설을 추가로 건설하도록 하시었다.

수도의 훌륭한 회의장소들이 아니라 격식과 틀이 없이 기동적으로 현지에서 적시적인 대책을 세운 이 협의회들은 인민의 가슴속에 새 생활, 새 행복창조에 대한 신심을 백배 해주었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국가부흥의 새시대를 상징하는 변혁적창조물들이 다련발적으로 솟구쳐오르고있는 속에 지난해말 지방인민들의 물

질문화생활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첫해 과업이 빛나게 완결되었다.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중앙이 지방을 부러워하게 하고 지방의 진흥이 우리 국가의 전진과 발전을 대표하게 하며 지방의 리상적인 면모가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으로 되게 하자것이 우리 당의 구상이라고 하시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불과 다섯달전만 해도 술술에 백사장뿐이었던 곳에 지방변혁의 특색있는 창조물로 솟아난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의 준공을 선포하시면서 이것은 전국적판도에서 동시다발적인 진흥을 지향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착실한 진전을 이룩해가고 있는 중대한 사업이 첫걸음을 뗀것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인민을 위하여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이어 가시는 열사복무의 길은 정녕 그 끝이 없었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들 한사람한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며 전체 인민이 건재하고 건강해야 당도 있고 국가도 있고 이 땅의 모



광천닭공장이 우리 나라 가금업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일떠섰다.



육십한 자연재해를 입었던 평안북도와 자강도, 량강도의 수해지역들에 130여일만에 현대문명이 응축된 리상적인 《농촌문화도시》, 선경마을들이 즐비하게 솟아올랐다.



성천군에 지방공업혁명이 개시된 때로부터 불과 290여일만에 지역적특성에 부합되고 생산의 자동화, 과학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우리 식의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이 일떠섰다.

든것이 다 있다고 간주하고계시는 그이께서는 지난해 7월말 뜻밖의 자연재해를 입은 인민들의 곁으로도 제일먼저 다가가시였다. 내리는 찬비를 고스란히 맞으시며 마지막 한사람의 생명까지 구원해주시고도 물먹은 로반우의 렬차안에서 련 이틀간이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지도해주시고 수재민들이 생활하는 천막들을 몸소 찾으시여 육친의 정을 부어주시였으며 위로의 연설도 하시였다. 뿐만아니라 평양에 올라온 수재민들이 근심걱정없이 편히 있도록 온갖 조건을 다 마련해주시였으며 아이들이 수업을 중단없이 진행할수 있게 교육조건과 환경을 보장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평안북도와 자강도피해복구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전국도처에 솟아나는 기념비적창조물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곧 일떠서게 될 수재민들의 살림집들도 다름아닌 백년대계로 담보해야 할 국가와 인민의 귀중한 재부로 된다고, 그런것만큼 사소한 결점도 완전무결하게 극복하고 완벽성보장에 더 큰 힘을 넣도록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국의 수재민들은 절망과 고통으로 몸부림친것이 아니라 누구나 부러워하는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어 더 좋은 앞날을 확신하였다.

이렇듯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조선로동당에 대한 인민의 믿음은 기적을 안아왔다.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로 하여 삼시에 폐허로 변하였던 지역들이 인민의 행복이 만발하는 사회주의락원으로 전변되였다. 수도에서 최상의 환대와 봉사를 받으며 꿈만같은 날과 달을 맞고보낸 수해지역의 주민들과 학생소년들은 자기들을 온 세상이 부러워할 새 생활, 새 문명의 주인공들로 보란듯이 내세워주시고 평안북도 피해지역 살림집 준공식에도 몸소 참석하시여 새 살림집에 보금자리를 떠게 될 모든 가정들에 행복과 화목이 넘치기를 따듯이 축복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우리 체육인들이 온 한해 국제체육무대를 조



2024년 12월 28일 지방변혁의 특색있는 창조물로 솟아난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가 준공하였다.

선관으로 만들며 전례없는 승리를 이룩한것은 2024년을 더욱 격동적인 한해로 화하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도 되였다.

우리의 력기선수들은 2024년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에서 7건의 세계신기록을 수립하고 32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으며 지난해 4월에 있는 2024년 국제력기련맹 세계컵경기대회에서도 통장훈을 부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2024년 국제력기련맹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리 나라 력기선수들은 금메달 26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6개, 도합 45개의 메달을 쟁취하고 나라별순위의 첫자리를 차지하였다.

특히 여자 64kg급경기에 출전한 리숙신수는 종합 264kg의 성적으로 금메달을 쟁취하였을뿐 아니라 추켜올리기와 종합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미더운 여자축구선수들은 국제축구련맹 2024년 20살미만과 17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각각 1위를 쟁취함으로써 지난해를 조선축구승리의 해로 빛나게 장식하였다.

그들은 이역의 경기장을 종횡무진하면서 훈련의 나날에 흘린 땀방울의 무게가 그대로 금메달이 되어 승리의 축포로 장식되어 온 세상에 우리의 국기를 휘날리고 조국과 인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장한 딸이 되겠다고 한 그날의 맹세를 한시도 잊지 않았다.

태권도선수들은 제10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와 제9차 국제무도경기대회, 《세계컵태권도경기대회-2024》에서, 손수림을 비롯한 여자권투선수들은 국제권투련맹 2024년 세계청년권투선수권대회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리고 민족의 역센 기상을 또다시 힘있게 떨치였다.



우리 나라 20살미만, 17살미만 여자축구팀들이 국제경기들에서 2개의 여자월드컵을 들어올렸다.



김금영선수가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여자단식경기에서 우승을 쟁취하였다.

2024년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여자단식경기에 출전한 김금영선수는 결승경기에서 일본선수를 3:1로 타승하고 금메달을 쟁취하는 자랑스런 성과를 거두었다.

체육인들이 거둔 자랑스런 국제체육경기성과는 뜻깊은 지난해를 승리적으로 결속해나가고있는 인민들에게 무한한 힘과 고무를 안겨주었다.

거창한 변혁으로 수놓아진 한해 2024년과 더불어 인민의 마음

속에는 당에 대한 믿음과 보답의 일념이 더욱더 강렬하게 자리잡았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새해에도 멸사복무의 령정을 즐기차게 이어가고있는 당을 따라 보다 큰 희망과 신심에 넘쳐 힘찬 진군길에 나섰다.

글 연옥

사진 최원철, 황정혁, 송대혁, 조선중앙통신



새해를 축하합니다

동포여러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잡지 《금수강산》편집부는 언제나 조국을 그리워하며 애국의 한길을 걸어가고있는 해외동포 여러분에게 뜨거운 새해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애국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는 여러분이 새해에도 건강하여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며 아울러 가정들

에 즐거움과 행복만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는 《금수강산》잡지를 고향에서 보내온 편지로, 사진첩으로 애독해주시던 여러분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변모된 고향의 사진을 놓고, 친척친우들이 보낸 편지를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보며 추억의

이야기로 꽃을 피울 동포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이와 성별, 사는 곳은 서로 달라도 언제나 마음은 조국에 두고있는 동포들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도 동포여러분은 조국인민과 마음도 숨결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국가적인 명절들과 중요계기때마다 축전, 축하편지, 꽃바구니들을 보내온것은 물론 다채로운 경축모임들을 가지고 조국의 인민들과 뜻과 마음을 하나로 이어갈 결의들을 피력하였습니다. 동포들은 화목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면서 아름답고 고상한 문리와 따듯한 정이 흐르는 조직으로 되도록 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들이 흘러온 날과 달들에 어려 있어 오늘 우리가 맞이한 새해가 그토록 자랑스럽고 희망넘친것이 아니겠습니까. 동포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나라와 민족의 번영은 결코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닙니다. 오직 민족자신의 힘으로 강국건설을 다그쳐야 합니다. 우리 《금수강산》편집부는 새해에도 변모되는 조국의 모습을 지면에 담아 여러분의 친근한 길동무가 되는 잡지, 애독하는 잡지로 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동포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를 축하합니다.

《금수강산》편집부

2025 새해 첫 진군길에 넘치는 목소리

청신한 기운과 뜨거운 열기로 총만되고 약동하는 젊음으로 고동치는 보람찬 2025년!
천만의 가슴을 끝없는 환희로 끓게 하고 보다 큰 승리와 더욱 휘황찬란한 래일로 부르는 뜻깊은 이해의 첫아침에 울리는 인민의 목소리를 여기에 담는다.

황철로동계급의 본때를 과시하겠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
강철직장 부직장장
리영철

지난해 우리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능률적이며 선진적인 주체화대상들을 일떠세우면서 산소전로와 100t초고전력전기로의 제강공정을 결합하여 질 좋은 중량레루강생산을 늘일수 있는 또 하나의 확실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실리적인 생산공정을 확립한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올해에도 의의있는 변혁적 성과들을 쟁취하는데서 주도적역할을 다해나갈 열의에 넘쳐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생산목표를 높이 세운데 맞게 경제전반의 상승을 보다 줄기차게 견인해나갈수 있는 주체철생산체계를 더욱 확대강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있다.
새로운 발전궤도를 따라 기운차게 내달리는 우리의 주체공업도, 당이 펼쳐준 지방진흥의 새시대도 더 많은 강철을 요구하고있다. 철이자 곧 전력증산, 석탄증산이고 현대적인 기계설비이며 알곡증산이다.
올해 2025년에도 우리는 당이 제시한 철강재고지를 점령함으로써 우리 강철로동계급의 본때를 과시하겠다.

교육사업에서 실체적인 변화를

교육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 우리 나라를 인재강국, 교육강국으로 만드는 사업에서 나를 비롯한 교육성의 일군들과 정무원들이 맡고있는 몫은 대단히 크다.
지난해 우리 성에서는 나라의 교육구조를 선진교육을 줄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전공관련과목들의 교육내용과 방법을 더 구체화, 다양화, 실용화하기 위한 사업들도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또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중앙과 지방의 교육수준차이를 줄일수 있는 통이 크면서도 대담한 목표들을 확정하여 수행해나갔다.

이번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는 교육사업을 제1의 국사로, 가장 책임적인 중대사로 제시하였다.
우리는 최단기간내에 나라의 교육도대를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기 위하여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면서 과학적이며 현실성있는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완강하게 집행해나가겠다.
나는 나라의 문명은 교육수준에 의하여 담보되며 우리 국가의 미래는 교육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는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우리의 교육이 또 한번 크게 비약하도록 하는데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겠다.



교육성 국장
동철민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완료형이 없다



평양시
평천구역인민위원회
부장 김원준

새해 2025년을 맞고보니 한개 구역안의 인민생활을 맡은 일군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맡고있는 임무가 더욱 막중하게 느껴진다.
한것은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세기적변혁들이 다발적으로 이룩되고있는 오늘의 이 현실을 누구보다 뜨겁게 그리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일군들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 구역에서는 주민들의 생활용수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는 문제, 당의 육아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 교육사업을 혁신하기 위한 사업, 종합약국건설

등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어 좋은 결실들을 마련하였다.
이렇듯 구역안의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크고작은 사업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결코 완료형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올해에도 구역안의 주민들을 위한 일거리들을 더 많이 찾아 계획에 반영하고 추진시켜나갈 것이다.
나는 새해에도 당의 숭고한 인민관을 받들어 인민의 총복으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가겠다.

중량레루생산에서 혁신을

-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중량레루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용광로직장에서는 로운영에 필요한 모든 원료, 부원료소비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여러 차지의 쇠물을 성과적으로 출선

하고있으며 조강직장에서는 오랜 기능공들과 압연공들이 힘과 지혜를 합쳐 중량레루생산 성과를 계단식으로 확대해나가고있다.

알탄과 가스생산공정을 비롯한 모든 계통들에서도 설비점검보수를 앞세우고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

키면서 증산운동에 활력을 더해 주고있다.

새해에 들어와 이곳 기업소에서 이루어지고있는 이러한 중량레루생산성과의 가장 근본적인 비결은 새로운 야금기술을 도입한데 있다.

지난해 기업소에서는 보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철생산토대

를 구축하는것을 정비보강사업의 주요목표로 내세우고 그 수행을 위하여 강철직장의 100t 초고전력전기기와 산소전로의 쇠물생산공정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나갔다.

그 과정에 철생산토대강화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과 합리화안들이 적극 탐구도

입되었으며 새로운 쇠물운반통로를 개척하기 위한 공사와 여러가지 장비를 보충하기 위한 모의시험도 진행되었다.

공무직장에서는 새 공정운영에 필요한 장비들을 실속있게 보강하여 새로운 중량레루강생산공정을 짧은 기간에 확립할수 있게 하였다.

지금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실리적인 새로운 생산공정을 확립한데 기초하여 나라의 철도운수부문에 이바지할 중량레루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글 연옥
사진 리영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결심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부르심따라 평안북도피해복구전구에 과건되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진출식이 2024년 8월 6일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청년전위, 그 부름과 더불어

조선청년들은 혁명의 년대기들마다 애국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전선으로 탄원하는 청년들 1950년 촬영



200여리에 달하는 해주-하성남은철길공사에 떨쳐나선 청년건설자들 1958년 촬영



630여리의 북부철길을 5년만에 완공한 청년돌격대원들과 철길건설자들 1988년 촬영



2년도 못되는 기간에 청년영웅도로를 완공한 청년건설자들 2000년 촬영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새해 력정의 전렬에서 우리의 청년들이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위대한 기적과 자랑스런 성과들로 가득찬 지난해의 승리와 영광을 2025년으로 이어놓기 위해 전국각지의 수많은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들에 용약 탄원진출하고있다.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 철의 기지들과 화학공업기지들, 수천척지하막장 등 그 어디에서나 조국의 발전을 추동하며 애국의 진군보폭을 힘차게 내짚는 청년들의 열정에 넘친 모습을 볼수 있다.

애국, 그것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오늘에 비로소 결부된 말이 아니다.

돌아보면 혁명의 년대기들마다 조국청년들은 당의 위업을 앞장에서 보위하고 조국이 부르

는 어렵고 힘든 곳으로 달려가 애국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건국의 첫 기슭에서 민청(오늘의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기발을 펄펄 휘날리며 새 조국건설의 앞장에서 내달린것도, 조국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던 1950년대에 전선탄원운동의 앞장에 선 사람들도 다름아닌 청년들이였다.

천리마대고조시기 300%돌파운동, 공결음반대운동, 1시간에 100집지기운동 등 여러가지 운동을 벌려 3~4년이 걸려야 한다던 해주-하성넓은철길공사를 불과 75일동안에 해제끼는 기적을 창조한 주인공들도 바로 우리 청년들이였다.

청년들의 지칠줄 모르는 애국열은 천리마시대의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청년사회주의건설자의 고귀한 부름을 조국청사에 새기였다.

조국청년들은 드넓은 바다우에도 청춘의 활무대를 펼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청년들은 바다로!》의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1959년 6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에만도 6 000여명의 청년들이 여러 수산사업소들로 달려나가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울리였다.

바다뿐이 아니였다.

탄광, 광산, 산림 등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부문으로 달려나가는 애국청년들의 대오는 나날이 늘어났다. 1961년부터 1969년 사이에 150여만명이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하고 260여만명이

7만여개의 청년돌격대에 망라되였다.

위대한 창조와 혁신으로 사회주의건설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조국청년들의 애국의 전통은 혁명과 건설의 년대들에 끊임없이 이어졌다.

1970년대초에 이천-세포사이의 새 철길건설에서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한 조국청년들은 북부철길건설에서도 청춘의 기상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1980년대를 빛나게 장식하였다. 청년건설자들은 충천한 기세로 차굴과 철다리공사에서 종전보다 3배이상의 속도로 전진함으로써 1988년 8월 25일까지 1단계공사구간의 모든 대상건설을 완전히 끝내였다.

나라의 경제형편이 가장 엄혹했던 시기인 1990년대에 우리 청년들은 100여리의 청년영웅도로건설을 통해 자신들의 애국의 열도가 얼마나 뜨거운가를 조국앞에 뚜렷이 보여주었다.

당시 전국각지에서 자원적으로 탄원해나선 5만여명의 청년들은 건설기계수단이 부족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함마와 정대로 바위를 깨내며 한치 또 한치 로반을 열어나갔으며 마침내 700여일이라는 기간에 거창한 도로를 완공하였다.

나라에서는 청년건설자들의 위훈을 빛내이기 위하여 이 고속도로를 청년영웅도로로 명명하였으며 건설자들에게 기념메달도 수여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일떠선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는 우리 청년들의 위훈의 대기념비로 조국청사에 빛을 뿌리고있다.

청년들은 살을 에이는 북방의 혹한속에서 만년언제를 쌓고 물길굴을 뚫었으며 10년동안에 해놓은 일과 맞먹는 방대한 작업과제를 불과 120여

일동안에 해제끼는 백두산영웅청년정신, 영웅청년신화도 창조하였다.

지난해에 우리 청년들은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별도로 수도 평양의 북쪽관문구역에 4 000여세대의 살림집을 일떠세워야 하는 전위거리건설에서도 기존의 기록을 끊임없이 갱신하면서 새 거리를 단 1년만에 완공함으로써 전위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온 세상에 또다시 과시하였다.

이렇듯 사회주의건설의 매 력사적시기마다 굴함을 모르는 용기를 가지고 모든 지혜와 힘을 깡그리 발휘한 우리 청년들의 조국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적열의에 떠받들려 오늘 조국땅우에는 시대의 기념비들이 우후죽순처럼 솟구쳐올랐다.

우리 청년들의 애국의 열정은 건설장에서만 발휘된것이 아니다.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래일이 앞당겨지게 될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받아안은 청년들은 조국보위초소는 물론 공장과 농촌, 광산과 탄광, 체육과 과학연구부문 등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청춘의 자서전을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새기고있다.

어제도 그러하듯이 오늘도 나라가 시련을 겪을 때, 조국이 또 한 단계의 도약을 요구할 때 제일 먼저 달려나가 순결한 량심을 바쳐가는 미더운 애국청년들을 가지고있어 우리 조국은 젊음으로 약동하며 끝없이 전진비약하는것이다.

글 및 사진 김성영



조국보위의 앞장에는 언제나 청년들이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 탄원하고있는 청년들

청춘의 땀을 바쳐가고있는 황해남도 안악군 오곡리 청년분조원들

과학자의 량심과 자존심을 안고



기업체들의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는데 리용되는 선진수준의 공업정보기술제품들을 60여종에 1만여개나 개발, 그중에서 분산입출구장치(9종)와 프로그램론리조종기, LoRa무선통신말단을 비롯한 여러종의 제품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첨단기술제품으로 등록...

이것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국가과학원 현대화연구소의 어느 연구실에서 거둔 성과자료의 일부이다.

과학기술이 발전되었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대다수의 공업정보기술제품들을 수입한다고 볼 때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이곳

연구실에서 이룩한 성과는 결코 작다고 볼수 없다.

하다면 연구실이 어떻게 되어 이러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는지.

지금으로부터 6년전 어느날 국가과학원 현대화연구소에서는 밤늦도록 연구사들의 기술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이곳 연구사들이 어느한 공장에 도입 하였던 통합생산체계가 리용과정에 자주 파괴되는것으로 하여 심각한 의견이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현자료해를 통해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원인은 하부구조구축에 리용한 수입산 공업정보기술제품들의 기술적성능이 불량

한데 있었다.

지난 기간 공업정보기술제품들을 개발하는 연구조에 망라되어 중요연구과제들을 맡아 손색없이 결속하여 나라의 정보처리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있던 김동일실장은 이 문제를 무심히 대할수가 없었다. 이와 관련한 연구사들의 의견도 일치되었다.

《정보기술제품을 수입에 의존하여서는 언젠가도 이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곧 연구조가 무어지고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들은 연구중점을 견본모방형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공업정보기술제품들을



개발하는데 두고 서로의 지혜를 합쳐가며 낮과 밤이 따로없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였다. 비록 연구력량도 미약하고 참고할만한 과학기술문헌들도 없었지만 연구사들의 탐구의 자세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김동일실장의 연구방안에 따라 회로설계를 끝낸 연구사들은 제작한 시제품들에 대한 성능비교와 환경검사를 거듭 진행하면서 완벽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갔다. 이 과정에 최대의 부하에서도 공업정보기술제품들이 자기의 성능을 발휘할수 있는 리상적인 보호요소들이 탐구적용되었으며 핵심기술의 비밀들

이 하나하나 장악되었다.

연구를 시작하여 1년만에 여러종의 공업사물인터넷용 정보기술제품개발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룩한 연구사들은 연구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제품의 품종수를 계속 늘어나갔다. 결과 2달후에는 선진수준의 공업정보기술제품들을 수십종이나 개발하게 되었으며 평양메기공장, 삼천메기공장을 비롯하여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 선진적인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새것을 지향하며 첨단에 끊임없이 도전해나선 연구사들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하여 최근년간에 일떠선 현대적인 대규모온실농장들에 지능형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선진적인 공업정보기술제품들을 개발도입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과 나라의 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글 김지성
사진 김영호

흥성이는 꽃상점

- 평양시 동대원구역화초사업소 대신꽃상점에서 -



찬바람이 불어치는 한겨울에 동대원구역화초사업소 대신꽃상점에서는 향설란, 장미, 국화 등 아름다운 화초들이 그윽한 향기를 풍기며 자라고있다.

이곳으로는 각종 화초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화분을 구입하기 위해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대신꽃상점 책임자 리혜련의 말에 의하면 화초의 청신한 모습에서 사람들은 자연의 순수한 아름다움과 함께 삶의 희열을 느끼게 된다고, 그런데로부터 사람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화초를 즐겨 가꾸고있다고 한다.

상점에서는 날로 높아가는 사람들의 문화정서생활을 적극도모하기 위하여 화초봉사의 질을 부단히 개선해나가고있다.

상점에서는 화초와 장식화분들의 종수를 부단히 늘이는 한편 봉사성도 높이고있다.

상점을 찾은 평양시 동대원구역 대신동 28인민반에서 살고있는 리현의녀성은 《윤기나는 진한 풀색의 잎과 작은 꽃들이 모여 큰 우산꽃차례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핀 큰꽃군자란과 잎이 독특하게 생긴 넓은잎 안투리움을 보느라면 저도 모르게 자연의 아름다운 정서에 취하게 되는것을 금할수가 없다. 화초의 가지수가 많아 어느것부터 구입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손님들은 화초를 구입하는 과정에 판매원들로부터 화초에 대한 리해를 더욱 풍부히 하고있다.

판매원들은 손님들에게 화초 판매만이 아니라 실내외공간에서 다양한 용도로 리용되는 화초장식의 치료기능, 환경적기능, 경제적기능을 비롯한 여러가지 기능과 최근 화초장식추세도 상세히 알려주고있다. 이와 함께 화초와 장소에 따르는 화분선택방법과 가정에서 화초들의 조화를 맞추는데서 나서는 문제 등에 대한 상담도 특색있게 진행하여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상점에서는 손님들에게 화초생장의 5대요소와 가정에서 할수 있는 화초병해충구제방법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알려주고있으며 각종 식물성장촉진제도 봉사해주고있다.

실명절이 다가올수록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 늘어나고있다.

글 김성영
사진 김호

보고싶은 나의 친구 애령에게

애령아,

조국에 함께 왔던 내가 가정에 생긴 불상사로 일본에 돌아간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내가 보고싶어 조국에서 이 편지를 쓴다.

그때 너는 아버지의 생명이 경각에 달하였다는 소식을 받고도 우리가 괴로워할가봐 떠나기 전 날까지도 웃음지으며 그 사실을 숨기였잖지.

아무 근심도 없는듯이 입가에 띄우던 너의 그 웃음이 동무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너를 보내야만 하는 안타까움이 얼마나 컸는지 애령인 다는 모를거야.

이슬비내리는 아침 쓸쓸히 너를 내려우고나서 우리 분조는 애령에게 우리의 조국방문소식을 알려주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단다.

애령아,

조국방문기간 나는 밤마다 별구경을 하군 했어. 조선대학교에서 기숙사창문너머로 너와 함께 조국의 하늘 바라볼 때처럼 말이야.

맑게 개인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

조국에서 보는 별은 왜서인지 신비로울 정도로 황홀하고 아름답구나.

자연의 힘이 만들어낸 그 천체, 처녀의 공상을 불러내던 그 별이 조국에서는 사람의 눈빛같이 느껴지더구나.

참관을 마치고 돌아온 날에는 그 별들이 처음 만난 우리를 따듯이 반겨맞아주던 공장의 기대공들과 대학생들의 정깊은 눈빛같았고 참된 삶의 계단으로 거침없이 인도해주는 조국인민들의 기대어린 눈빛같았어.

대성산혁명렬사릉에 올랐던 그날에는 저 하늘의 별들이 모두 조국을 찾기 위해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친 유명무명의 선렬들의 역세고도 근엄한 눈빛으로 보이더구나. 또 어느날엔가는 그 별들이 조국을 빛내인 영웅들의 넋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더구나.

별이 천태만상이듯 어머니조국의 각이한 눈빛들은 나에게 간절히 당부하는것만 같았어.

몸은 비록 이역에 살아도 별처럼 빛나는 청춘, 값높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그들의 당부를 가슴속에 새기며 나는 생각했어.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한생을 깨끗하게 산 사람만이 저 순결무구한 창공에 올라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될수 있는것이라고.

애령아,

조국체류중에 우리는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국기계양식에 참가했잖어.

이역의 하늘가에 휘날리던 공화국기를 우리 손으로 조국의 하늘가에 띄울 때의 그 감격을 무슨 말로 표현할수 있겠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히 주악되는 속에 하늘높이 계양되는 공화국기발을 우러르며 《몸과 맘 다 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를 나직이 따라 부르면서 나는 국기에 새겨진 별을 더 눈부시게 빛내이는데 한생을 다 바칠 심장의 맹세를 다지였어.

애령아,

우리 별처럼 빛나게 살자.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했듯이 총련조직과 재일동포사회의 밝은 빛을 더해주는 애국의 별이 되자. 이제 상봉의 날까지는 불과 한주일.

돌아가면 조국에서 받아안은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와 즐겁고 보람넘친 가지가지 일화들에 대하여 너에게 이야기해주마.

조국체류의 마지막날까지 분분초초 열심히 배워 애국의 이 마음 더 자래울것을 약속하며.

하네다비행장에서 우리의 국기를 기운차게 흔드는 너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바란다.

2024년 10월 12일
평양에서 친구 김윤아 보냄

고향소식

다각적인 발전잠재력을 갖춘 도시



해주시는 조선서해연안에 있는 황해남도의 소재지이다. 고구려시기 내미홀군 혹은 지성, 장지라고도 한 해주는 고려시기인 10세기전반기부터 오늘의 지명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조선봉건왕조말엽에 해주는 평양, 개성 등과 함께 우리 나라 5대고을중의 하나였다. 그래서인지 해주시에는 수양산성, 해주9층탑, 석빙고, 해주다라니석당을 비롯한 유적유물이 많았다. 특히 1500년에 지은

부용당은 해서지구의 명물로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고있었다. 우리 인민들은 명소들을 8경의 하나로 꼽는 풍습이 있는데 부용당은 해주8경의 하나였다. 부용당은 련못안의 루정과 둔덕의 응향각을 련결시켜 만들어진것으로서 자기의 독특한미를 가지고있다. 해주 부용당

이 얼마나 유명하고 아름다웠으면 옛날 사람들이 해주에 갔다가 부용당을 보지 못했으면 해주에 갔었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오늘까지 전해지고있다 고 한다. 해주민속공원에서 력사유적들을 돌아보던 우리는 태봉각앞에서 손자손녀들에게 옛이야기

를 들려주는 한 녀성을 만났다. 알고보니 그는 미국에서 살고있는 고상수동포의 동생 고소춘이었다. 잡지 《금수강산》편집부의 기자들이라는 우리의 소개에 그는 언제인가 오라버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잡지에 실은적이 있다며 무척 반가워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후에 오라버니



해주밀가공공장에서



해주농기계공장에서



민족악기교육을 받고있는 해주시 승마고급중학교 학생들



새 콩품종을 육종하고있는 황해남도농업과학연구소의 연구사들



국보유적 제68호 부용당



국보유적 제70호
해주9층탑



국보유적 제82호
해주다래니석당

해주시 력사유적의 일부

의 회답을 받았는데 문안인사와 함께 수양산기슭의 고향산천에 대한 애뜻한 심정을 적어보냈다고 하였다.

멀리 타향에서도 고향을 잊지 못해하는 동포의 심정을 읽은 우리는 해주시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주목되는것은 시가 우리 나라의 곡창지대에 위치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농업과 관련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발달되어있는것이였다. 시에만도 황해남도농업과학연구소, 해주농기계공장, 해

주뜨락또르부속품공장 등이 있어 도의 농업생산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고있었다.

최근년간 황해남도농업과학연구소에서는 생육기일을 앞당기면서 소출이 높은 농작물품종, 염기견딜성이 강한 논벼품종을 육종해내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고 해주농기계공장에서는 개건현대화공사를 다그치면서 벼종합수확기와 백수십대의 이동식벼탈곡기를 생산하여 도내 농장들에 보내주었다.

해주밀가공공장에서는 도적인 밀생산량이 크게 늘어난데 맞게 제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었다. 생산의 첫 공정인 원료정선공정을 맡은 로동자들은 원료투입량과 속도조질을 합리적으로 하여 정선률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었고 원료세척 및 탈수공정과 제분공정을 맡은 로동자들도 원료의 수분상태와 설비들의 능력에 맞게 운전조작을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하여 제품의 질과 실수률을 높이고있었다.

온 나라가 농사를 도와주는 지원열풍속에 황해남도체신관리국에서는 국가과학원의 과학자들과 함께 토양의 산성상태를 측정하는 설비를 개발하여 농장들에 보내주었다.

농업부문만이 아니였다.

해방전 일제의 약탈적목적에 리용된 기형적인 기업소가 몇개 있던 해주시가 오늘은 현대적인 중공업과 경공업기지를 갖추고 발전된 수산업을 가진 항구문화도시로 전변되였다.

시에서는 각종 농기계, 전기

기계, 통신기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계제품들을 생산하여 도내 수요를 충족시킬뿐 아니라 다른 도에까지 보내주고있었고 만부하로 돌아가는 지방공업공장들에서는 질 좋은 인민소비품들이 생산되고있었다.

건설이 적극 추진되는 속에 영광동을 비롯한 시의 여러곳에 지역적특성이 살아나는 살

림집들이 솟아나 새집들이경사가 펼쳐지고 황해남도과학기술도서관을 비롯한 문화정서기자들이 곳곳에 일떠서 인민의 기쁨을 더해주고있었다.

돌아볼수록 날을 따라 변모되는 해주시의 현실이였다.

글 변진혁
사진 김강무



조옥희해주교원대학



해주학생교복공장



고신숙

저녁노을이 그토록 아름다운것은...



지난해 10월에 진행된 《선진과학기술 및 제 품전시회-2024》 참가자들속에는 여든살을 가가 이한 녀성도 있었다.

평양시민족유산보존사 연구사인 고신숙로인은 같은 단위 연구사 송옥선로인과 공동으로 개발한 실내공기정화기와 난치성질병치료기구편을 전시 하였다. 그는 정깊은 눈가에 언제나 미소를 띄우고 평양시민족유산보존사의 전시대를 찾는 참관 자들에게 제품의 효과성에 대해 구체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해주었다.

집안에 편안히 앉아 인생의 락을 누린다고 닻 할 사람이 있으랴만 어찌하여 그가 고향의 나이에 도 지칠 줄 모르는 정열을 안고 연구사업에 전 심할수 있었는지...

고신숙의 고향은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 한 양구이다.

어린 나이에 살길을 찾아 이역땅으로 갔던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일찌기 머슴살이로 뼈를 굴 히였다.

조국이 해방된 후 그들은 제 나라, 제 땅에서 마음편히 살겠노라며 3살도 채 되지 않은 딸딸 고신숙을 등에 업고 압록강을 다시 건넜다.

이렇게 조국의 품에 안긴 고신숙은 단란한 가정 을 이루었다.

그러던 어느해 중국에서 사는 그의 이모가 처음으로 조국을 찾아왔다.

어머니네 두 자매의 상봉은 50여년만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모의 말에 의하면 해방전 외할머니는 6살밖에 안되던 딸딸인 그의 어머니를 보 리쌀 한말값에 일본인의 아이보개로 팔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한다. 그 보리쌀로 온 식구의 굶주림 을 면하게 되었던 외할머니는 눈을 감는 순간까 지 딸딸의 이름을 불렀다고 한다.

고신숙은 그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으며 조국의 운명속에 한가정의 운명뿐 아니라 개인의 운명도 있다는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년로보장나이가 되어 국가의 혜택속에 인생 의 말년을 보내게 되자 그는 허전함을 금할수 없었다.

나라와 인민을 위해 보람있는 일을 더 찾아하 고싶었다.

동료들이 꽃피는 모란봉이며 경치좋은 휴양지 나 료양지를 찾아가며 락을 누리고있을 때 그는

책속에 파묻혀있었다.

지난 30여년간 체신부문에서 일하는 과정에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있어서인지 그의 머리속에서 는 가지가지 착상이 떠오르곤 하였다.

그때로부터 그는 10여년간이나 방대한 과학기술자료에 대한 분석과 수백번에 걸치는 실험, 부 단한 립상검토를 진행하여 환자에게 고통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도 여러 질병들에 긍정적으로 작용 하는 지능화된 치료기구를 개발하였다.

뒤따라 음이온을 방출시켜 살림방이나 사무실 의 공기를 정화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할수 있는 독특한 실내공기정화기와 동종기술제품들뿐만 아니라 력사유적보호관리사업에 이바지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문제들도 적지 않게 해결하였다.

고신숙은 새 기술제품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사 람들속에서 호평을 받을수록 여생을 나라의 부 강번영을 위한 사업에 다 바칠 결심을 가다듬 군 한다.

아들 강철준을 민족유산보호관리부문에 서도 록 떠밀었고 몇해전에는 그와 함께 력사유적들의 단청의 보존기일을 늘일수 있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도 거두었다.



아들의 연구사업을 방조하고있다.

얼마전 아들과 함께 모란봉의 력사유적인 칠 성문에 오른 그는 서쪽하늘가에 비낀 저녁노을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저 노을은 과연 무엇으로 하여 저리도 아름다운가. 저녁노을의 아름다움을 태양을 떠나 생각 할수 없듯이 황혼기에 이른 나의 인생의 삶이 오 늘처럼 빛날수 있는것은 한생을 애국에 살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준 어머니조국의 따뜻한 그 품이 있기때문이 아니었던가!...)

글 러해, 사진 김호



장기수풀이 (25)

장기격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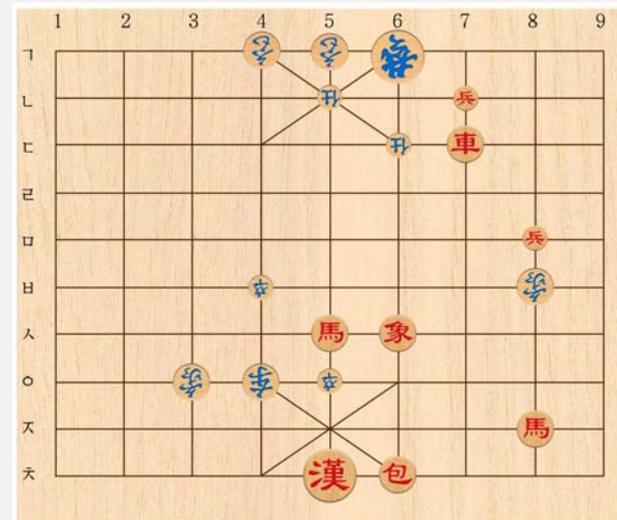
중포는 열두수 보고 놓으라

이 말은 포를 중에 놓으면 방어에서 매우 불리하다는것을 뜻하는 동시에 만약 의도적으로 중포를 놓으려면 그 약점을 잘 알고 그것을 대응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놓으라는 내용을 의미한다.

중포를 놓으면 공격과 방어에서 립체성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고 특히 궁성방어에서 자기의 중포가 더 우환으로 되는 실례가 많은것과 관련된다.

장기수풀이 (24)에 대한 답

ㄴ3차 ㄱ3, ㄴ5사 ㄱ5, ㄱ3차 ㄱ5, ㄱ6궁 ㄱ5, ㄱ1말 ㄱ2, ㄱ5궁 ㄴ5, ㄱ1상 ㄴ4, ㄴ5궁 ㄴ4, ㄱ1포 ㄱ4, ㄴ4궁 ㄴ5, ㄱ5상 ㄴ2, 《장훈》



붉은색쪽이 먼저 써서 푸른색쪽을 이겨야 한다.



민족당과 다식

- ① 밀다식
- ② 밤다식
- ③ 콩다식
- ④ 검은참쌀다식
- ⑤ 강병이다식
- ⑥ 수수다식
- ⑦ 참쌀다식



예로부터 차를 즐겨 마신 우리 인민은 차와 함께 과자도 먹었습니다. 이 차과자를 만들 때에는 옥차임이나 그 가루를 넣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점차 세월이 흐르면서 주변에 흔한 여러가지 낱알가루로 만들어먹기도 하였는데 여전히 다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식에 대해 다시 정의를 한다면 닻거나 튀긴 낱알가루를 꿀과 물엿, 사탕가루로 당액을 만들어 반죽하여 일정한 모양으로 찍어낸 과자의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얼마전 우리는 민족당과인 다식이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선민족유산보존사 실장 조일경을 만났습니다.

취재과정에 우리는 다식에 대한 리해를 깊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민들은 먼 옛날부터 우리 나라에 풍부한 여러가지 음식감들을 리용하여 자기의 기호와 식성에 맞으면서도 영양가와 약리적가치가 높은 엿, 다식, 정과, 유밀과, 숙실과와 같은 당과들을 다종다양하게 만들어먹었습니다.

그럼 민족당과의 하나인 다식은 어떤 의미를 담고있는가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는 다식의 《다》자가 《차 다(茶)》자인것으로 하여 그 기원을 우리 나라에서 차문화의 발전과의 련관속에서 보는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1762년에 편찬된 《성호세설류선》에서는 다식을 쌀가루를 꿀과 섞어서 나무틀안에 다져서 만든 단병 즉 둥근 떡이라고 하였습니다. 19세기에 실학자 정약용이 당시 류통되던 말들을 어원적으로 고증하여 편찬한 도서 《아언각비》에서는 옛날(조선봉건왕조이전시기를 의미함.)에는 쌀가루만으로 다식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밤, 참깨, 솔꽃을 가지고도 만든다고 서술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려(918년-1392년)시기까지만 하여도 다식의 재료로는 낱알이 위주였다면 조선봉건왕조(1392년-1910년)시기에는 낱알은 물론 여러가지 식용식물의 열매, 꽃가루, 기름작물 등으로 그 재

료가 다양하게 쓰이였음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다식에 대한 기록은 고려말기의 유학자이며 대관료였던 리색(1328년-1396년)이 쓴 시에서도 찾아볼수 있습니다.

리색은 시에서 다식을 잘게 썰으면 단맛이 혀밑에서 감돈다고 하였습니다.

다식은 주재료로 무엇을 리용하는가에 따라 밤다식, 밀다식, 솔꽃가루다식, 깨다식, 대추다식, 호두다식 등으로 부르 고있습니다.

다식은 일상식생활에서보다도 의례상차림에 많이 쓰인것으로 하여 그 모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다식을 만드는데 리용된 다식판은 박달나무, 대추나무, 참나무와 같이 단단하면서도 잘트지 않는 나무로 리용하였는데 그 재질과 제작 및 문양새김이 하나로 잘 어울려 그야말로 하나의 공예품을 방불케 하였습니다.

다식은 주로 한가지로 만들지 않고 적어도 세가지이상의 색다식을 만들어 함께 어울려 담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 흰색, 검은색의 다섯가지 색을 기본으로 삼고 다식을 만들 때 재료의 천연적인 색을 그대로 살리곤 하였습니다.

흰색의 백미다식, 노란색의 솔꽃가루다식, 검은색의 들깨다식 등을 한그릇에 담아내었는데 이렇게 하면 빛갈도 잘 어울리고 다양한 맛을 볼수 있었습니다.

조선봉건왕조시기 다식은 색깔이 다양하고 모양도 여러가지로 찍어낸것으로 하여 결혼식상이나 첫돌생일상, 제상차

림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의례음식으로 되었습니다.

다식은 낱알가루와 함께 여러가지 고려약재를 넣어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평양시과학기술회원회 고문 윤희(64살)녀성이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다식은 닭은 콩가루를 비롯한 낱알가루를 주원료로 풀이나 물엿에 여러가지 고려약재와 단백질가루를 반죽하여 다식판에 찍어낸 민족음식입니다.

그럼 콩다식만드는 방법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재료로서는 콩가루 770g, 사탕가루 230g, 물엿 154g, 꿀 30g, 기름 92g이 리용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우선 물엿과 사탕가루, 꿀을 넣고 졸여 당액을 만든 다음 이 당액에 콩가루를 넣고 반죽합니다. 다식판에 기름을 바른 후 반죽물을 놓고 찍어낸 다음 건조시켜 굳히면 다식이 완성됩니다.

평양시과학기술회원회 새마을기술제품생산소에서는 우리나라의 흔한 원료들과 약재들을 리용하여 사람들의 구미와 기호에 맞는 여러가지 다식들을 만들어 봉사하고있습니다.

꿀과 콩, 인삼과 살구씨, 불로초를 비롯한 천연재료를 가지고 만든 다식은 사람들의 신체를 튼튼하게 하고 약리효과도 매우 좋은 건강식품, 장수식품으로서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다양하게 하고있습니다.

오늘 조국에서는 우리의 민족음식인 다식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식료부문 기술자들의 노력이 계속되고있습니다.

글 연옥
사진 김호

약산동대의 천주사에서



천주사외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일컫는 풍요한 가을도 슬슬 물러가고 있던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다. 푸른 하늘이 높게 들리고 마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이날 우리는 명승지로 이름높은 약산동대를 찾았다.

평양대극장 주차장에서 출발한 배스가 시내를 벗어날무렵 모란봉관광사 안내원 홍수련이 마이크를 쥐고 관광객들앞에 나섰다.

《인민을 위한 명승지들이 자기의 아름다움과 자태, 웅장한 모습을 새롭게 드러내고 관광객들을 기다리는 이 좋은 계절에 우리와 관광의 길에 함께 오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의 구슬같은 목소리는 관광객들의 이목을 일시에 집중시켰다.

그는 관광일정을 간단히 알려주고나서 《평북녕변 찾아가자 약산동대 찾아가자》라는 《평북녕변가》를 멋들어지게 불렀다.

노래가 울리자 관광객들은 저마다 어깨를 들썩이였다.

이 노래로 시작된 오락회는 관광객들의 려행길을 즐겁게 하였다.

어느덧 배스는 명승지가 자리잡고있는 약산동대입구에 멈춰섰다.

40대초반의 명승지안내원 최은심이 우리를 이끌고 등산길에 오르며 이렇게 말하였다.

《봄철에 온 산을 연분홍색으로 물들이는 진달래와 여름의 짙은 록음, 독특한 설경을 펼치는 겨울의 약산동대도 황홀하지만 가을경치 또한 뛰어나입니다.》

산발을 물들인 붉은 단풍이며 나무우듬지마다에서 들려오는 유정한 산새들의 지저귐, 서늘한 바람을 타고 파도처럼 굽실거리는 숲의 설레임소리...

누구나 바라보면 아름다움에 반하고 들어보면 저도 모르게 깊은 정서에 잠겨들게 하였다.

이윽고 그는 약산동대는 평

안북도 녕변군 읍에서 서쪽으로 약 2km 떨어진 구룡강의 왼쪽기슭에 솟아있다고 그 유래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놓았다.

약산이라는 말은 예로부터 이곳에 귀한 약초가 많고 약수가 유명하여 불리운 이름이고 동대라는 말은 동쪽에 높이 솟아있는 지대라는 뜻이다. 이곳에는 우리 선조들의 창조적재능과 예술적기교를 보여주는 옛 건물인 천주사, 서운사, 룝승정과 함께 애국적투쟁이야기가 깃든 철옹성지와 남문 등 고적들도 있어 명승지의 풍치를 더욱 돋구어준다는것이였다.

그의 해설을 흥미진진하게 들으며 기운차게 걸음을 내디디는 관광객들의 눈앞에 어느덧 천주사가 나지였다.

천주사주변에는 주목, 느리나무, 소나무 등이 서있었는데 그가운데서도 1800년대부터 자랐다는 앞마당의 추향배나무가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서리맞은 돌배가 달고 향

기롭다던데...》

한 젊은 녀성이 자기와 함께 온 남성과 배나무를 몇번이나 엿갈아보면서 말끝을 흐리였다.

그의 이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던 최은심은 《아마 새색시인가보군요?》라고 하더니 《참판을 마치고 저 높은 돌배나무에 남편을 올려보내어 꼭 서리맞은 열매를 따서 맛보고 가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안내원의 이 말에 관광객들이 웃음을 터뜨렸는데 웃음소리가 잦아지자 녕변땅에 대한 해설이 시작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조선봉건왕조시기 인민들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평안도에 속해있던 서북쪽변방에 위치한 연주고을에 돌성을 쌓았다고 한다.

고구려때 처음 쌓고 그후 계속 보강하였는데 1684년에는 내성을 중축하면서 원래 있던 천주사도 고쳐지였다. 이 절간은 한때 청천강이북의 승군지휘처가 있던 곳으로서 군사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바로 그때부터 녕변은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은 지역이라는 뜻에서 편안한 변방 즉 녕변이라고 불리우게 되였다.

우리는 그의 뒤를 따라 천주사의 루정에 올랐다. 그곳은 다른 절간의 루정들과 구별되게 특색있게 세운 다락집이였다. 가운데의 넓은 다락을 중심으로 량쪽에 뻗은 복도끝에 앞으로 내민 다락이 날개마냥 편결되였는데 동쪽의것이 《향일헌》, 서쪽의것이 《망월대》였다. 그 량쪽다락뒤로는 부속 건물들이 뻗었는데 그것은 마치도 옛 관청건물인듯한 느낌을 주고있었다.



천주사내부

이곳에서 안내원 최은심은 관광객들에게 여기가 낮이 익지 않은가고 물었다. 그러자 몇몇 중년녀인들이 《예.》 하더니 루정이 떠들썩하게 예술영화 《사랑사랑 내 사랑》을 촬영한 장소인것같다고 대답하는 것이였다.

안내원은 그들의 말이 옳다고 긍정해주면서 바로 이곳에서 여러편의 력사물영화를 찍었다고 말해주었다.

우리가 루정을 내려서니 거

기에는 170여년이나 자랐다는 희귀한 짧은잎소나무와 샬터가 있었다.

소나무아래서 기념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안내원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샬터의 량쪽에 서서 동시에 물을 마시며 좋아라 웃고떠드는 사람들도 있었다.

안내원은 보광전을 비롯한 천주사의 모든 건물들이 수백년동안이나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있는것은 선조들의 뛰어난 건축술과 슬기로움이 깃들여있기때문이라고 하였다.

천주사를 돌아본 우리는 또 다시 등산길에 올랐다.

약산동대의 제일봉, 동대, 학벼루를 비롯한 명소들에 오르니 약산동대를 감돌아흐르는 구룡강과 조선서해로 유유히 흐르는 청천강, 대령강, 동쪽 멀리로 룡문산의 웅장한 자태뿐 아니라 옛 성터로 둘러싸인 녕변읍의 전경과 드넓은 전야도 한눈에 안겨왔다.

우리는 이렇듯 조국강산의 명승지마다에 선조들의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는 력사유적들과 애국적투쟁이야기가 깃들어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며 오래도록 산을 내리지 못하였다.



글 려해
사진 김영호



애국시인 리규보

12세기 후반기 고려시기의 이름난 시인인 리규보를 두고 사람들은 열정의 시인, 애국의 시인, 농민의 시인이라고 하였다.

그는 1168년 1월 리윤수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 여러곳으로 다니다가 7살에 개경으로 와 거기서 소년시기를 보내었다.

어렸을 때부터 글공부를 하였는데 9살에 글을 지어 기동이란 별호를 받았고 11살에는 시를 지어 사람들을 놀래웠다.

그의 세계관형성과 문학수업에 큰 영향을 미친것은 1170년 무신정변직후 집권자들의 전횡을 피하여 정계를 떠나 방랑의 길에 올랐던 7명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문학류파인 《해좌칠현》 문인들과의 접촉이었다.

그는 이들과 사귀면서 현실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들의 날카로운 시구에 동감해나섰다.

리규보는 벼슬살이를 원치 않았으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천마산에 들어가 세상과 등지고 자신을 백운거사라고 하

면서 은거생활을 하였다.

백운이란 흰구름이란 뜻이다.

그는 천마산에서 창작에 전력했다. 이곳에서 그는 자기의 대표작이라고 볼수 있는 장편서사시 《동명왕편》은 26살에, 《천보영사시》는 27살에, 《3백2운시》는 28살에 내놓았다.

그는 일찍부터 즉흥시와 장시들을 썼는데 모두가 새롭고 창발적이며 언어가 다양하고 기운이 장대하며 섬세하고 호방하였다.

그는 어렵고 힘든 운에 대해서도 한번 붓을 들기만 하면 단번에 백장이라도 써내려갔다.

그의 글들은 옛사람들을 본따려 하지 않았으며 자기의 뚜렷한 얼굴이 있었다.

천마산에서의 그의 생활은 10여년이나 계속되었다.

당시 그는 어찌나 가난하였던지 자기가 입고있던 옷을 저당잡히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리규보는 32살에 벼슬길에 나섰다.

그는 벼슬을 할 때 매우 겸손하였으며 친구들이나 아래사람

들이 장한 일을 하였을 때면 언제나 내세워주었다.

아침을 모르는 리규보는 여러 차례 벼슬이 오르내렸으며 하급관리로 지방생활도 하였다.

이 과정에 그는 농민들과 많이 접촉하였고 그들의 고달픈 생활을 직접 체험하였으며 집권자들에 대한 증오와 불만의 감정을 품게 되었다.

이런 곡절많은 길이 바로 그로 하여금 농민적인 시가작가로 되게 하였다. 그는 1232년 칙략자들이 쳐들어오자 늙은 몸으로 싸움의 길에 나섰고 이 과정에 좋은 글들을 남기었다.

리규보는 시와 함께 산문도 썼다.

그는 문예평론, 설화형식의 패설, 의인전기체작품들, 려행기, 풍자산문 등을 썼다.

그후 남은것들을 정리하여 《동국리상국집》을 묶었는데 여기에는 2 000여수의 시와 700여편의 산문이 담겨져있다.

김일봉

역사이야기

아버지를 찾아온 유류

유류는 고구려의 건국시조인 동명왕(고주몽)의 맏아들이다.

그는 아버지가 부여왕실의 박해를 피하여 남쪽의 구려땅으로 떠난 다음해인 B.C. 278년에 부여국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불우하게 유년시절을 보낸 유류는 장난이 세찬것으로 하여 마을녀인에게서 아버지가 없으니 못되게 논다는 욕설까지 먹었다.

그는 너무도 분하여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다.문을 열고 방안에 들어선 그는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하였다.

방안에서 바느질을 하던 어머니 레씨가 서럽게 우는 아들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어머니에게 유류는 《우리 왜 아버지가 없나이까.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오이까?》라고 물었다.

아들을 바라보며 레씨는 엄숙하게 말하였다.

《너의 아버지는 여기서 몇백리 떨어진 곳에 있는 고구려라는 나라의 임금이다. 너의 아버지는 부여왕자들과 관리들의 모해와 시기가 뒤따르게 되자 이곳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가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우셨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곳을 떠나면서 아들을 낳으면 일곱모가 난 돌우에 선 소나무밑에 감춘 물건을 찾아내어 그것을 가지고 만나러 오라는 말을 남기였다고 하면서 이제부터 나가

서 놀 생각을 그만두고 아버지의 말대로 하라고 하였다.

다음날부터 그는 함께 놀자는 아이들의 권고도 뿌리치고 산으로 올랐다. 울창한 수림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산을 살살이 훑으며 그는 일곱모가 난 돌우에 선 소나무를 찾기 시작하였다. 간난신고하며 며칠동안 찾아보았으나 그런 소나무는 어디에도 없었다.

어느날 저녁 서산에 락조가 비껴무렵 지친 다리를 끌고 집으로 돌아온 유류는 맥없이 마루에 앉아 어둠이 짙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 아버지. 지금 아들의 이모습을 보시오이까? 하루빨리 그것을 찾고 한달음에 아버님 곁으로 달려가고싶소이다. 보고싶은 아버지.)

이때였다. 그가 앉아있는 곳으로부터 불과 두어걸음 되나마 나한 곳에 있는 기둥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무심결에 그곳을 바라보던 그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글쎄 기둥밑에 있는 주춧돌이 일곱모가 나있는것이 아닌가. 유류가 달려가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소나무기둥이었다.

그는 다급히 그밑을 파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그의 눈앞에 절반정도의 칼토막이 나타났다. 유류는 칼을 찾았으니 아버지를 찾아가자고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그때 레씨는 아들에게 나이가 어리고 무술솜씨도 서툴다고 하면서 아버지는 네가 칼

만 찾아가지고 오는것을 바라지 않았을것이라고 하면서 무술도 더 익히고 뜻이 맞는 친구들을 더 사귀어 이곳을 탈출할수 있게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유류의 나이는 8살이었다.

그때로부터 10여년세월이 흘렀다. 그 나날 유류는 하루와 같이 활쏘기, 칼쓰기, 말타기 훈련을 하였으며 여러 친구들과 사귀었다.

B.C. 259년 4월 유류는 드디어 어머니를 모시고 세 벗들인 옥지, 구추, 도조와 함께 고구려를 향하여 길을 떠났다.

고구려에 들어선 레씨와 유류는 동명왕앞에 나섰다.

유류는 자기가 동명왕의 아들이라는 증거물로 소중히 간직하였던 칼토막을 꺼내었다. 동명왕은 자기의 칼토막과 그것을 맞추어보고 자기 아들임을 확인하였다.

그후 그는 아들의 무예를 보자고 하였다.

대궐밖으로 나온 유류는 칼을 뽑아들고 이제껏 련마한 검술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다음에는 활과 화살을 쥐고 백걸음밖에 옥가락지를 놓고 단번에 맞혔다. 이것을 보고 동명왕과 대신들은 감탄하였다.

동명왕은 즉석에서 유류를 태자로 삼았다. 그해 9월 부왕이 세상을 떠나자 유류가 왕위에 올랐다.

김영은

유모아

부드러운 실습 간호원

의사가 아주 부드럽게 실습간호원에게 말하였다.

《205호실 환자가 앞으로 6개월밖에 안남았어. 가서 말해주시오.》 실습간호원은 입원실로 들어가

환자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6개월 후에 죽을거예요.》

환자는 그 말을 듣고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의사가 실습간호원을 불러놓고 욕을 하며 말하였다.

《환자에게 그렇게 직선적으로 말하면 어찌나? 310호실 환자는 한달밖에 안남았어. 이번에는 좀 부드럽게 말해봐.》

실습간호원은 입원실로 살며시 들어가서 조용히 코노래를 부르며 환자의 귀에 대고 말하였다.

《이달말에 죽을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지요.》

환자가 멍해서 간호원을 올려다보았다. 간호원은 허리를 펴고 호탕하게 웃으며 《하하하!!! 바로 당신이예요!》라고 말하였다.

* * *

보통강에 결박된 미제의 무장간첩선

지금으로부터 57년전인 1968년 1월 23일 우리 나라 령해에 깊숙이 침입하였던 정체불명의 배가 조선인민군 해군에 의하여 나포되었다. 이날 오전 군인들은 원산앞바다에 있는 러도로부터 7.6mile지점까지 불법침입한 한척의 정체모를 배를 포착하였다. 이미전부터 공화국령해를 도적고양이처럼 교묘하게 들락날락하던 그 배를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던 조선인민군 해군이 출동하여 배를 나포하였다.

나포된 배는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였다. 《푸에블로》호는 미제침략군 태평양함대에 소속되어 전문적인 정탐활동을 사명으로 하는 무장간첩선이였다. 최신식정탐기구들로 장비되어있는 《푸에블로》호의 80여명 선원들은 정탐활동에 필요한 경험과 기술을 충분히 갖춘 간첩들이였다. 나포당시 배에는 대구경기관총과 수십정의 저격무기들도 있었다. 《GER-2》라는 배의 간판도 《해양연구선-2》호라는 감투를 뒤집어쓴것인데 당시 미해군에는 이런 간첩선이 3척 있었다.

1962년 까리브해의 위기와 1964년의 바크보만사건으로 하여 극도로 오만해진 미국은 어느 바다에서든 마음대로 날치였다.

후날 포로들의 고백에 의하면 성조기를 띄우기만 하면 까리브해에서처럼 어느 나라 함선이든 물러서리라고 오산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동해에서는 미국의 명성과 힘이 통하지 않았다.

미제의 무장간첩선의 나포는 조선의 정당한 자주권의 행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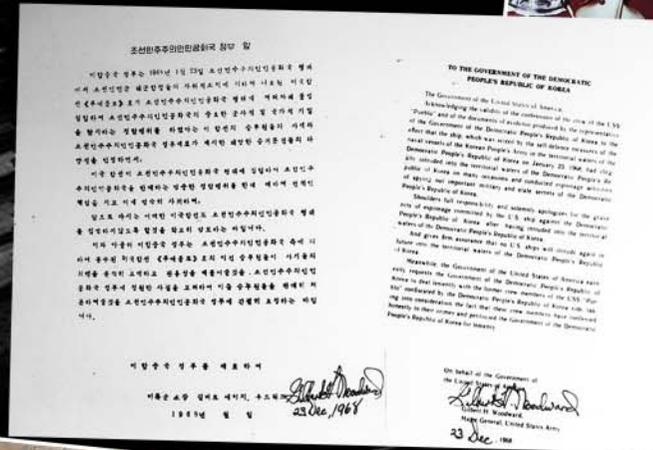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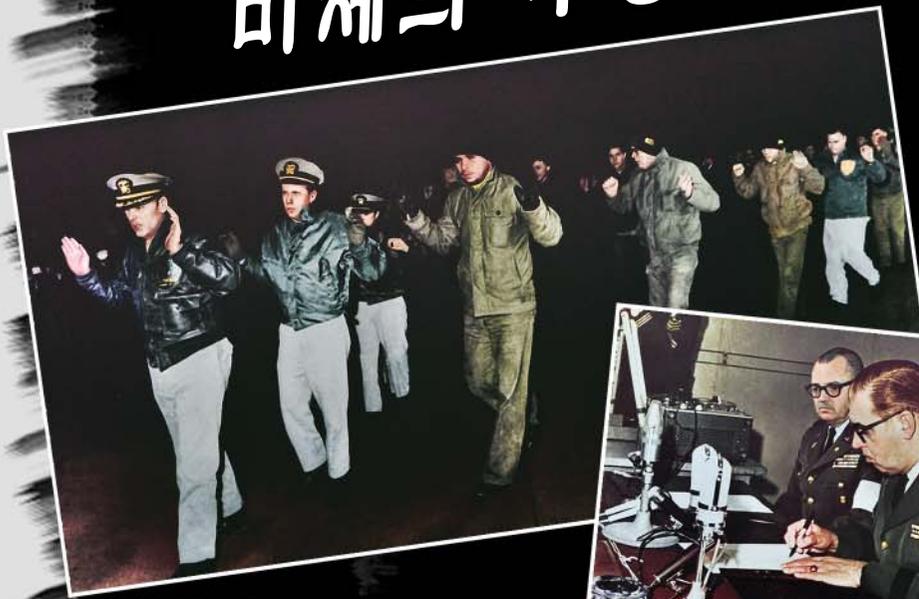
하지만 미국은 《푸에블로》호가 《공해상》에서 나포되었다느니, 간첩행위를 하지 않았다는니 하고 생역을 쓰면서 군사적위협으로 우리 인민을 굴복시켜보려고 책동하였다.

미국은 1월 24일과 25일에 연방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군사적보복조치》를 취할것을 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록해공군침략무력을 우리 나라 연해에 집결시키고 위협해나섰다.

조선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터질수 있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었다.

그때 공화국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세계는 부글부글 끓었다. 하지만 조국의 바다는 고요하였다. 《보복》을 떠들며 항공모함이요, 비행대요



하는 미국의 방대한 무력이 주변에 물러와 설치됐지만 공화국령해에는 한발자국도 들어설념 못했다.

위협과 공갈이 통하지 않게 되자 그해 12월 미국정부는 사죄문건을 공화국정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하여 포로들은 관문점을 통하여 공화국경외로 추방되었고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는 원산의 부두가에 못박혀있었다.

원산의 부두에 30년나마 있던 간첩선은 1999년 조선동해에서 조선서해로 하여 수도 평양의 대동강에 주저앉았다. 남의 나라에 붙들려있는 유일한 함선이라는 수치를 완력으로라도 씻어야 한다고 기업을 터치던 미국에 있어서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신세가 되고말았다.

그후에는 보통강에 결박되었다.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이 있는 때로부터 5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미국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

지금 이 시각도 미국은 《힘의 논리》를 제창하며 감히 공화국에 대한 군사력사용으로 이 지역에서 사상 초유의 핵전쟁을 불러올수 있는 위험한 장난질을 하고 있다.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자주적인 나라들을 겨냥하여 미일한 3각군사동맹과 같은 침략적인 군사력을 집중형성하고있는 미국은 지역밖의 대결기구인 나토세력까지 끌어들이면서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을 위협에 빠뜨리고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1960년대와는 대비도 안되는 세계적인 군사강국이다. 미국의 그 어떤 위협적인 수사나 행동, 계략과 시도도 우리의 군사적강세를 막아세우지 못했으며 오랜 기간 간고한 도전을 이겨내며 핵강국으로서의 절대적힘과 그를 리용할 체계와 기능을 불가역적으로 확보했다.

공화국은 이미 적들이 자기의 주권을 침해하는 무력사용을 기도하려한다면 가차없이 핵무기를 포함한 수종의 모든 공격력을 사용할것이라고 선언한바 있다.

1950년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서 우리 인민의 승리(1953. 7. 27.)가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은 사변이었다면 1968년의 《푸에블로》호사건은 조미대결전에서 미국의 패배향행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낀 사건이었다.

림해경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